

자료해석영역

1. 다음 <표>는 A시 가구의 형광등을 LED 전구로 교체할 경우 기대효과를 분석한 자료이다. 다음 <정보>를 참고하여 옳지 않은 것을 고르면?

<표> 형광등을 LED 전구로 교체 시 기대효과

A시의 가구수 (세대)	적용 비율 (%)	가구당 교체개수 (개)	필요한 LED전구수 (천개)	교체비용 (백만원)	연간 절감 전력량 (만 kWh)	연간 절감 전기요금 (백만원)
600,000	30	3	540	16,200	3,942	3,942
		4	720	21,600	5,256	5,256
		5	900	27,000	6,570	6,570
	50	3	900	27,000	6,570	6,570
		4	1,200	36,000	8,760	8,760
		5	1,500	45,000	10,950	10,950
	80	3	1,440	43,200	10,512	10,512
		4	1,920	56,600	14,016	14,016
		5	2,400	72,000	17,520	17,520

주1) kWh : 1kW의 역률(전력)로 1시간 동안에 하는 일의 양
 주2) 1년 = 365일

<정 보>

- 현재 A시의 모든 가구는 형광등을 사용하고 있다고 가정함
- 1kWh 당 온실가스의 배출량 = 0.5kg
- 소나무 1그루당 연간 온실가스 흡수량 = 5kg
- A시 자동차 1대당 1일 평균 주행거리 = 40km
- 자동차 1대가 1km를 주행할 때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양 = 0.3kg

- ① A시의 모든 가구가 형광등 5개를 LED전구로 교체한다면 교체비용은 900억원이 소요된다.
- ② A시의 전체 가구 중 60%가 형광등 5개를 LED전구로 교체한다면 180만개의 LED전구가 필요하다.
- ③ A시의 전체 가구 중 30%가 형광등 5개를 LED전구로 교체한다면 소나무 657만 그루의 연간 온실가스 흡수 효과를 나타낸다.
- ④ A시의 전체 가구 중 80%가 형광등 3개를 LED전구로 교체한다면 연간 12,000대의 자동차가 운행하지 않는 것과 같은 온실가스배출 감소 효과를 나타낸다.
- ⑤ A시의 전체 가구 중 50%가 형광등 4개를 LED전구로 교체하더라도 교체 후 초기 5년간 절감된 전기요금은 LED전구 교체비용 보다 적을 것이다.

2. 다음 <표>는 A지역과 B지역의 2년제 대학 및 4년제 대학 졸업생의 취업 현황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표> A·B지역 대학 졸업생 취업현황

(단위: 명)

구 분		총 졸업자	총 취업자	A지역 취업자	B지역 취업자	A·B 이외지역 취업자	수도권 취업자
2년제 대학	A지역	14,155	12,322	8,550	1,769	2,003	1,115
	B지역	16,079	13,550	1,620	6,566	5,364	2,646
4년제 대학	A지역	8,903	5,145	2,683	604	1,858	1,108
	B지역	23,910	14,301	4,040	4,878	5,383	2,910
합 계		()	()	16,893	13,817	14,608	7,779

주1) 취업률(%) = $\frac{\text{취업자}}{\text{졸업자}} \times 100$

주2)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사람이 취업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본다.

<보 기>

- 총 졸업자 중 자신이 졸업한 대학이 있는 지역에 취업한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A지역의 2년제 대학 졸업 집단이며, 가장 낮은 집단은 A지역의 4년제 대학 졸업 집단이다.
- A 또는 B지역의 2년제 대학을 졸업한 후 A·B 이외의 지역에서 취업한 인원 중 과반수는 수도권에서 취업하였다.
- 전체 조사대상자의 취업률은 70%가 넘으며, 이 중에서 A지역의 2년제 대학 졸업자의 취업률이 가장 높다.
- 총 졸업자 중 수도권 취업자의 비율은 전체 조사대상 집단 중 B지역의 2년제 대학 졸업자가 가장 높다.
- 총 취업자 중 자신이 졸업한 대학이 있는 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취업한 자의 비율은 “B지역의 4년제 대학 > A지역의 4년제 대학 > B지역의 2년제 대학 > A지역의 2년제 대학” 순이다.

- ① ㄱ, ㄴ, ㄷ
- ② ㄱ, ㄴ, ㄹ
- ③ ㄴ, ㄷ, ㄹ
- ④ ㄴ, ㄹ, ㅁ
- ⑤ ㄷ, ㄹ, ㅁ

3. 다음 <표>는 효소별 기질 농도(S)와 반응속도(V)의 관계를 나타낸 자료이다. <정보>를 참고하여 효소 A의 반응속도 최댓값과 효소 B의 기질 친화도를 고르면?

<표> 효소별 기질 농도와 반응속도의 관계

기질 농도(S)의 역수 값	각 효소별 반응속도(V)의 역수 값	
	효소 A	효소 B
1	0.012	0.015
0.5	0.011	0.0125
0.2	0.0104	0.011
0.1	0.0102	0.0105

<정 보>

효소의 기질 농도(S)와 그에 따른 효소 반응속도(V)는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가진다.

$$V = (V_{\text{max}} \times S) / (K + S)$$

Vmax와 K는 각 효소가 가지는 고유의 상수로서, 이중 Vmax는 효소의 반응속도 최댓값이고 K의 역수는 효소의 기질 친화도이다.

효소 A의 반응속도 최댓값 효소 B의 기질 친화도

- | | | |
|---|-----|-----|
| ① | 100 | 0.5 |
| ② | 200 | 0.5 |
| ③ | 100 | 2.0 |
| ④ | 200 | 1.0 |
| ⑤ | 100 | 1.0 |

4. 다음 <표>는 2012년 6월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현황 등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표 1> 2012년 6월 성별·연령별 취업자와 근로자 현황
(단위: 천명, %)

구 분		취업자(A)	근로자(B)	비율(B/A)
전 체		25,117	17,933	71.4
성별	남 성	14,542	10,143	69.7
	여 성	10,575	7,790	73.7
연령	15~29세	3,868	3,612	93.4
	30~39세	5,784	4,794	82.9
	40~49세	6,687	4,718	70.6
	50~59세	5,433	3,276	60.3
	60세 이상	3,346	1,533	45.8

주) 취업자는 근로자와 자영업자로 구성되는 것으로 본다.

<표 2> 2012년 6월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현황
(단위: 천명, %)

구 분		근로자	사회보험 가입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전 체		17,933	65.2	68.3	64.3
성별	남 성	10,143	71.1	74.9	70.4
	여 성	7,790	57.6	59.8	56.4
연령	15~29세	3,612	68.0	68.9	67.2
	30~39세	4,794	78.9	79.4	76.6
	40~49세	4,718	69.0	69.5	66.1
	50~59세	3,276	60.7	62.1	58.0
	60세 이상	1,533	14.1	41.9	28.4
월 평균 임금	100만원 미만	2,760	17.5	23.0	21.5
	100~200만원 미만	7,002	58.5	62.6	60.9
	200~300만원 미만	4,172	81.0	82.4	79.2
	300~400만원 미만	2,140	92.1	93.1	87.9
	400만원 이상	1,859	95.4	97.0	90.7

<보 기>

- ㄱ. 전체 취업자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자의 비율은 각각 45% 이상이다.
- ㄴ. 취업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높은 연령집단을 순서대로 나열 하면 30~39세, 15~29세, 40~49세의 순이다.
- ㄷ. 취업자와 근로자 모두 남성의 건강보험 가입률이 여성의 건강보험 가입률보다 높다.
- ㄹ. 모든 연령집단에서 근로자의 가입률이 가장 높은 사회보험은 건강보험이고 그 다음은 국민연금이다.
- ㅁ. 근로자의 월평균임금별 사회보험 가입 현황을 보면 월평균임금이 100~200만원 미만인 집단의 가입자 수가 각 사회보험에서 가장 많다.

- | | |
|--------------|-----------|
| ① ㄱ, ㅁ | ② ㄴ, ㄷ |
| ③ ㄱ, ㄹ, ㅁ | ④ ㄴ, ㄷ, ㄹ |
| ⑤ ㄱ, ㄴ, ㄷ, ㅁ | |

5. 다음은 A시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결정기준>이다. 이를 참고하여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많이 지불하는 사람을 <보기>에서 골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부동산 중개수수료 결정기준 >

- 주택 거래에 따른 중개수수료 기준율은 <부동산 중개수수료 결정기준>에서 제시한 바와 같다.
- 부동산 중개수수료 = 기본수수료 + 부가수수료
- 중개수수료는 계약시점에 지불한다.

가. 매매 거래 시 기본수수료

거래금액	기준요율	한도액
5천만원 미만	0.006	25만원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0.005	80만원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0.004	없음
6억원 이상	0.009	없음

주) 기본수수료는 거래금액에 기준요율을 곱하여 계산하되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임대차 거래 시 기본수수료

거래금액	기준요율	한도액
5천만원 미만	0.005	20만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0.004	30만원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0.003	없음
3억원 이상	0.008	없음

주1) 기본수수료는 거래금액에 기준요율을 곱하여 계산하되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주2) 월세계약의 거래금액은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산정한다.

다. 건물형태별 부가수수료

건물형태	2013년 3월 이전 기준요율	2013년 3월 이후 기준요율	한도액
사무실	0.005	0.004	없음
상가	0.002	0.003	없음
아파트	0.003	0.005	200만원
오피스텔	0.012	0.003	100만원

주) 부가수수료는 거래금액에 거래기준요율을 곱하여 계산하되 거래금액별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 보 기 >

혜정: 2013년 2월에 보증금 2억원에 월세 150만원 사무실 계약
성준: 2013년 4월에 보증금 1억 5천만원에 월세 50만원 상가 계약

가현: 2013년 6월에 아파트를 5억원에 매매계약

아련: 2013년 1월에 아파트를 3억원에 전세계약

근석: 2013년 1월에 보증금 1억원에 월세 150만원 오피스텔 계약

- ① 혜정, 가현, 근석, 아련, 성준
- ② 아련, 혜정, 가현, 성준, 근석
- ③ 혜정, 가현, 아련, 근석, 성준
- ④ 혜정, 아련, 근석, 가현, 성준
- ⑤ 혜정, 아련, 가현, 근석, 성준

6. 다음 <표>는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사망원인별 인구 10만명 당 사망자 수를 나타낸 표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표> 사망원인별 인구 10만명 당 사망자 수

(단위: 명)

연도 사망 원인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전체	504.5	509.7	506.1	503.7	501	495.6	498.4	498.2	497.3	512	513.6
위암	23.9	24.4	24.2	23.1	22.5	21.9	21.5	20.9	20.4	20.1	19.4
간암	21.2	22.9	22.6	22.4	22.3	22.3	22.7	22.9	22.6	22.5	21.8
폐암	24.9	26.1	26.2	27.3	28.2	28.7	29.1	29.9	30	31.3	31.7
당뇨병	23.8	25.1	25	24.2	24.2	23.7	22.9	20.7	19.6	20.7	21.5
고혈압성 질환	10.2	10.6	10.6	10.4	9.3	9.4	11	9.6	9.6	9.6	10.1
심장질환	33.9	36.9	35.3	36.7	39.3	41.1	43.7	43.4	45	46.9	49.8
뇌혈관 질환	73.7	77	75.3	70.1	64.1	61.3	59.6	56.5	52	53.2	50.7
폐렴	6	5.6	5.7	7.1	8.5	9.3	9.3	11.1	12.7	14.9	17.2
만성하기도 질환	19	22.6	19.1	17.3	15.5	14.4	15.3	14.9	13.9	14.2	13.9
간질환	22.2	21.9	20.5	19	17.2	15.5	14.9	14.5	13.8	13.8	13.5
운수사고	20.9	19.1	19	17.1	16.3	15.9	15.5	14.7	14.4	13.7	12.6
자살	14.4	17.9	22.6	23.7	24.7	21.8	24.8	26	31	31.2	31.7

<보 기>

- ㄱ. 폐암으로 인한 총 사망자 수는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ㄴ. 위암, 간암, 폐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으로 사망한 사람 수의 합이 전체 사망자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에 비해 2011년에 하락하였다.
- ㄷ. 사망원인별 사망자 수가 많은 순서대로 나열하면 폐렴과 자살은 2001년에 비해 2011년에 순위가 상승하였다.
- ㄹ. 사망원인별 사망자 수가 많은 순서대로 나열하면 간암, 당뇨병, 간질환, 운수사고는 2001년에 비해 2011년에 순위가 하락하였다.
- ㅁ. 2010년에 비해 2011년에는 심장질환과 폐렴으로 인한 인구 10만명 당 사망자 수는 증가하였으나 위암과 운수사고로 인한 인구 10만명 당 사망자 수는 감소하였다.

- ① ㄴ, ㅁ
- ② ㄱ, ㄴ, ㅁ
- ③ ㄴ, ㄷ, ㄹ
- ④ ㄷ, ㄹ, ㅁ
- ⑤ ㄱ, ㄴ, ㄷ, ㄹ

7. 다음 <표>는 재산범죄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면?

<표1> 재산범죄별 발생현황

(단위: 건)

연도	전체	절도	장물	사기	횡령	배임	손괴
2001	392,473	169,121	1,319	180,350	22,867	4,842	13,974
2002	415,572	179,208	1,418	195,914	21,990	4,767	12,275
2003	470,826	187,871	1,145	240,359	23,895	5,322	12,234
2004	447,163	154,850	1,581	246,204	27,224	6,736	10,568
2005	442,015	191,114	3,547	203,697	25,412	5,901	12,344
2006	455,948	190,745	2,432	203,346	25,084	5,402	28,939
2007	469,654	212,530	3,050	186,115	24,122	5,256	38,581
2008	503,302	223,264	2,212	205,140	26,750	5,135	40,801
2009	561,972	256,680	3,381	224,889	27,362	6,709	42,951
2010	568,623	268,007	3,206	205,913	26,312	14,619	50,566

<표2> 재산범죄별 피해정도(2010년)

(단위: 건)

구분	전체	피해 없음	100만원 이하	1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	1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미확인
계	568,623	140,299	73,646	43,450	12,307	2,845	272	295,804
절도	268,007	50,554	64,767	33,071	3,478	154	3	115,980
장물	3,206	997	184	170	31	8	3	1,813
사기	205,913	63,545	6,058	8,853	7,791	2,196	151	117,319
횡령	26,312	9,074	798	881	837	379	80	14,263
배임	14,619	1,493	9	57	142	102	35	12,781
손괴	50,566	14,636	1,830	418	28	6	-	33,648

<표3> 재산범죄별 피해금액 및 회수현황(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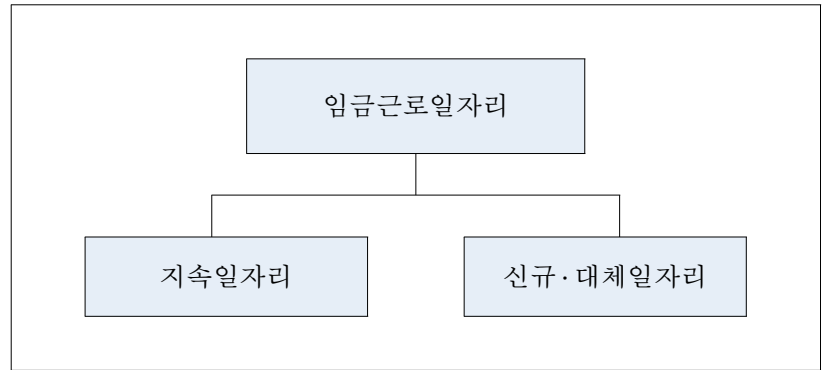
(단위: 십만원)

구분	절도	사기	횡령	배임
피해금액	2,408,480	12,364,712	8,030,257	4,696,659
회수금액	192,871	176,248	81,816	6,252

- ① 조사기간 동안 전체 재산범죄 발생건수는 2004년과 2005년에 각각 전년대비 감소하였으나 2006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 ② 장물은 2005년 3,547건으로 전년대비 100% 이상 증가한 후 매년 증감을 반복하였다. 2004년과 2005년 절도의 발생건수를 비교하면 절도는 2004년보다 2005년에 20% 이상 증가하였다.
- ③ 2001년 대비 2010년에 전체 재산범죄 중 절도의 비중은 증가한 반면, 사기와 횡령의 비중은 감소하였다.
- ④ 2010년 재산범죄별 피해정도에서는 피해액수가 확인된 사건을 기준으로 볼 때, 절도는 피해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건이 가장 많았고, 사기는 1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 횡령과 배임은 1,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가 가장 많다.
- ⑤ 2010년 절도, 사기, 횡령, 배임의 피해금액 대비 회수금액은 절도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사기, 횡령, 배임의 순으로 나타났다.

8. 다음 <그림>과 <표>는 2013년 임금근로일자리와 관련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그림> 임금근로일자리 구성도



주) 임금근로일자리를 생성하는 조직형태는 회사법인, 회사이외법인, 정부, 비법인단체, 개인기업체이다.

<표 1> 2013년 조직형태별 임금근로일자리 전년대비 증가 수 및 증감률

구분	회사법인	회사이외법인	정부	비법인단체	개인기업체
증가 수 (만개)	31.1	10.6	0.1	1.8	9.7
증감률 (%)	3.7	6.3	0.1	5.3	4.7

<표 2> 2013년 조직형태별 지속일자리와 신규·대체일자리 현황 및 전년대비 증감률

구 분		회사 법인	회사이외 법인	정부	비법인 단체	개인 기업체
지속 일자리	현황 (만개)	560.6	124.9	126.7	18.9	115.1
	증감률 (%)	1.7	1.7	-4.3	7.1	6.3
신규·대체 일자리	현황 (만개)	300.6	55.3	39.7	16.6	101.9
	증감률 (%)	7.8	18.3	17.1	3.4	2.9

<보기>

- ㄱ. 2013년 임금근로일자리 수는 전년에 비해 총 53만개 이상 증가하였다.
- ㄴ. 2012년과 2013년 모두 임금근로일자리 수가 많은 조직형태부터 나열하면, 회사법인, 개인기업체, 회사이외법인, 정부, 비법인단체의 순이다.
- ㄷ. 2013년 신규·대체일자리 수가 전년대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조직형태는 회사이외법인이고, 가장 적게 증가한 조직형태는 비법인단체이다.
- ㄹ. 비법인단체의 경우 2012년도 지속일자리 수가 같은 연도 신규·대체일자리 수보다 많다.
- ㅁ. 2012년 지속일자리 수가 많은 조직형태부터 나열하면 회사법인, 정부, 회사이외법인, 개인기업체, 비법인단체의 순이다.

- ① ㄱ, ㄴ, ㄷ
- ② ㄱ, ㄷ, ㄹ
- ③ ㄱ, ㄹ, ㅁ
- ④ ㄱ, ㄴ, ㄹ, ㅁ
- ⑤ ㄴ, ㄷ, ㄹ, ㅁ

9. 다음 <표>는 A국 정부기관별 공무원 규모와 통솔인원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A국의 정부기관은 ‘가’~‘바’ 부처로 구성되어 있다)

<표 1> A국 정부기관별 공무원 규모

(단위: 명)

구 분	‘가’ 부처	‘나’ 부처	‘다’ 부처	‘라’ 부처	‘마’ 부처	‘바’ 부처
4급 이상	700	300	()	100	400	700
5급	()	1,500	800	250	800	1,400
6급	2,400	5,000	4,000	1,250	2,000	5,000
7급~9급	6,000	()	()	2,500	3,600	9,000

주) 공무원의 직급은 1급에서 9급까지이며, 급수가 작아질수록 상위직급임.

<표 2> A국 정부기관별 통솔인원

(단위: 명)

구 분	‘가’ 부처	‘나’ 부처	‘다’ 부처	‘라’ 부처	‘마’ 부처	‘바’ 부처
4급 이상	()	()	56	40	16	22
5급	6	10	20	15	7	10
6급	2.5	2	()	2	1.8	1.8

주) 상위 직급이 하위 직급을 통솔함. 통솔인원은 공무원 한 명이 부처 내에서 평균적으로 통솔하는 하위직급 공무원의 수를 의미함.

- ① ‘가’~ ‘바’ 부처 중 7급 이하의 공무원이 두 번째로 많은 부처는 ‘나’이다.
- ② 공무원 규모가 가장 큰 부처는 ‘다’이며, 가장 작은 부처는 ‘라’이다.
- ③ ‘나’와 ‘라’ 부처는 7급 이하 공무원이 전체 인력의 6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 ④ ‘가’~ ‘바’ 부처 중 4급 이상 공무원의 통솔인원이 가장 적은 부처는 ‘가’이다.
- ⑤ 6급 공무원의 통솔인원이 가장 많은 부처는 5급 공무원의 통솔인원도 가장 많다.

10. 다음 <표>는 13세 이상을 대상으로 앞으로 하고 싶은 여가활동에 대해 면접 조사한 결과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표> 앞으로 하고 싶은 여가활동에 대한 선호율(복수응답)

(단위: %)

구 분	전체	남성	여성	13 ~ 19세	20 ~ 29세	30 ~ 39세	40 ~ 49세	50 ~ 59세	60세 이상
TV 및 DVD 시청	12.6	13.8	11.4	13.3	8.5	7.8	9.4	11.8	24.8
여행	58.5	60.7	56.3	43.4	59	65.8	64.6	63.2	49
문화예술관람	26.7	20.3	33.1	37.8	36.4	34.4	28.1	19.7	9.5
스포츠관람	8.5	13.6	3.4	11.4	11.6	9.7	8.6	7.4	4
스포츠활동	20.7	28.9	12.5	27.1	24.4	25.1	26.4	17.6	6
창작적취미	15.5	10.4	20.6	22	20.6	18.5	16.1	12.7	6.2
자기계발	22.9	22.4	23.4	28.8	37.7	31.6	22.4	15.7	5.7
봉사활동	9.2	7.3	11.1	6	5.4	7.6	11.7	14.1	8.7
종교활동	8.6	6.4	10.8	3.3	4	5.3	8.5	13	14.8
휴식	16	15.3	16.7	14.6	12.2	15.8	14.7	15.7	21.6
사교활동	19.6	18.1	21.1	21.4	18.2	14.8	15.9	21	27.1

<보 기>

- ㄱ. 30~39세부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스포츠 관람을 하고 싶은 응답자의 수는 감소하고 있다.
- ㄴ. 13~19세보다 20~29세 연령대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싶은 응답자 수가 10% 적으며, 종교활동을 하고 싶은 응답자 수는 10% 이상 많다.
- ㄷ. 주어진 여가활동의 범주 가운데 성별 간 비율차가 가장 많이 나는 것은 문화예술관람으로, 여성은 문화예술관람을 남성 에 비해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ㄹ. 모든 성별·연령대에서 주어진 여가활동의 범주 가운데 앞으 로 가장 하고 싶은 것으로 여행을 꼽았다.
- ㅁ. 자기계발을 하고 싶은 응답자 수와 휴식을 하고 싶은 응답자 수의 차이는 남성이 여성보다 크다.

- ① ㄱ, ㄴ, ㄷ
- ② ㄱ, ㄴ, ㄹ
- ③ ㄴ, ㄷ, ㅁ
- ④ ㄷ, ㄹ, ㅁ
- ⑤ ㄱ, ㄴ, ㄷ, ㅁ

11. 다음 <표 1>은 Z산업군에 속한 3개 기업의 연도별 수익에 관한 자료이고, <표 2>는 2개 연구소에서 Z산업군에 대한 2013년도 예상 매출액과 이익을 변경한 자료이다. <정보>를 참고하여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표 1〉 A~C 기업의 연도별 수익

(단위: 십억원, %)

구 분	2011년 2분기	2012년 3분기		
	수익	수익	증감율	
			전년 대비	전분기 대비
<A기업>				
매출액	204	211	4.2	0.8
영업이익	12	20	39.4	2.7
순이익	10	15	34.8	5.9
<B기업>				
매출액	60	77	10.6	1.4
영업이익	14	27	17.0	57.3
순이익	12	21	15.2	51.3
<C기업>				
매출액	180	192	6.4	3.5
영업이익	14	16	58.6	6.4
순이익	12	13	73.3	2.1

〈표 2〉 A~C 기업에 대한 X·Y연구소의 2013년 예상 매출액과 이익 변경

(단위: 십억원)

구 분	X 연구소				Y 연구소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2012년	2013년	2012년	2013년	2012년	2013년	2012년	2013년
<A기업>								
매출액	823	837	816	820	870	888	860	873
영업이익	71	79	62	65	84	95	78	95
순이익	57	62	51	52	65	76	65	80
<B기업>								
매출액	234	248	225	240	215	226	220	205
영업이익	54	58	55	60	67	75	70	73
순이익	48	49	49	50	32	39	35	37
<C기업>								
매출액	731	732	731	732	695	730	695	702
영업이익	11	48	8	47	24	52	40	62
순이익	1	28	2	28	1	13	1	2

<정 보>

- 매출총이익 = 매출액 - 매출원가
- 영업이익 = 매출총이익 - (판매비+일반관리비)
- 영업외손익 = 영업외수익 - 영업외비용
- 경상이익 = 영업이익 + 영업외손익
- 순이익 = 경상이익 + 특별손익 - 법인세
- Z산업군에는 A기업, B기업, C기업 이외의 기업은 존재하지 않는다.

<보 기>

- ㄱ. 전분기 대비 2011년 3분기 매출액 증가분이 가장 큰 기업에 대하여 X 연구소는 2013년도 예상 순이익을 증가시켰다.
- ㄴ. 3개 기업의 판매비와 일반관리비가 모두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2012년도 3분기 매출원가가 가장 높은 기업에 대하여 Y 연구소는 2013년도 예상 영업이익을 감소시켰다.
- ㄷ. Y 연구소의 변경 후 예상이 옳다고 가정할 때, C기업의 2012년 2분기와 3분기 영업이익의 합은 같은 해 1분기와 4분기 영업이익의 합보다 3배 이상 많다.
- ㄹ. 2013년에 대한 변경된 예상에 따를 때, Z산업군의 매출액에서 B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X 연구소의 예상이 Y 연구소의 예상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 ㅁ. 전분기 대비 2012년 3분기 경상이익 증가액이 가장 큰 기업은 B기업이다.

- ① $\neg$, $\exists$
② $\neg$, $\cup$, $\exists$
③ $\cup$, $\cap$, $\exists$
④ $\cup$, $\cap$, $\forall$
⑤ $\cap$, $\exists$, $\forall$

12. 다음 <표>는 S시 의원들이 1년 동안 발의한 조례안 실적을 조사한 자료이다. 아래의 <정보>를 참고하여 산출한 식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 S시 의원의 조례안 발의 실적

(단위: 명, 건)

정당	의원 수	개정안 수	제정안 수	의원 1인당 개정안 수	의원 1인당 제정안 수
A	16	31	29	1.94	1.81
B	85	145	(a)	1.71	(b)
C	81	112	64	1.38	0.79
D	82	(c)	11	(d)	0.13
E	(e)	460	13	(f)	(g)

주) S시에는 5개의 정당만 존재한다.

〈정 보〉

-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 수는 A당이 가장 적고, E당이 가장 많다.
- 의원들이 발의한 제정안 수는 B당이 가장 많고, D당이 가장 적다.
- 의원 1인이 평균적으로 발의한 개정안 수는 A당, B당, C당만 각각 3건을 넘지 못한다.
- 의원 1인이 평균적으로 발의한 제정안 수는 A당과 B당만 각각 1건 이상이다.

- ① $d \times e > 3f$
 ② $a / d > 15$
 ③ $f \times b > 3$
 ④ $a + c > 331$
 ⑤ $b \times c + g > 246$

13. 다음 <표>는 박사 甲이 훼손 원인별 A습지와 B습지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자료이다. <정보>를 활용하여 <보기>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표 1> 훼손 원인별 A습지 기능에 대한 영향

훼손원인\기능	서식지	생물 다양성	수위 조절	수질 개선	홍수 조절	생산성 향상	관광 명소
매립/간척	●	○	○	●	○	-	+
제방축조	●	●	●	○	○	●	+
자원과잉개발	○	○	●	○	○	○	●
생활양식변화	○	●	○	●	○	●	○
외래종 도입	○	○	-	-	○	●	○
위락행위	●	○	○	-	●	○	○
농토확장	○	●	●	●	○	○	○
인구증가	○	○	○	○	○	○	○

<표 2> 훼손 원인별 B습지 기능에 대한 영향

훼손원인\기능	서식지	생물 다양성	수위 조절	수질 개선	홍수 조절	생산성 향상	관광 명소
매립/간척	●	○	○	○	○	○	+
제방축조	-	○	○	○	+	○	-
자원과잉개발	-	○	○	○	-	○	○
생활양식변화	○	○	○	○	○	○	-
외래종 도입	○	○	○	○	○	○	○
위락행위	○	-	○	○	○	○	-
농토확장	○	○	○	-	○	○	○
인구증가	○	○	○	-	○	-	○

<정 보>

1. 박사 甲이 사용하는 기호의 의미

기호	의 미
-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미미한 부정적 영향(1)을 미침
●	상당한 부정적 영향(2)을 미침
○	심각한 부정적 영향(3)을 미침
●	회복불가능한 부정적 영향(4)을 미침
+	긍정적 영향을 미침

* ()는 부정적 영향의 크기를 나타내며, 숫자가 클수록 부정적 영향의 크기가 크다는 의미임.

2. 훼손 원인이 같을 경우 같은 기호가 나타내는 영향의 크기는 습지의 위치에 관계없이 같다.
3. 훼손 원인이 다를 경우 각 기호가 나타내는 영향의 크기는 서로 아무런 관계가 없다.

<보 기>

- ㄱ. 생활양식변화가 홍수조절 기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크기는 A습지보다 B습지에서 더 작다.
ㄴ. 매립/간척과 제방축조는 A습지와 B습지의 관광명소 기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ㄷ. 위락행위가 A습지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기능의 수는 자원과잉개발이 B습지에 '미미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기능의 수와 같다
ㄹ. 농토확장과 자원과잉개발이 B습지의 생물다양성 기능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는 동일하다.
ㅁ. A습지의 수질개선 기능에 '회복불가능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훼손 원인의 수는 B습지의 수위조절 기능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훼손 원인의 수의 절반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ㄷ, ㅁ
⑤ ㄴ, ㄷ, ㄹ

14. 다음 <표>와 <그림>은 한국거래소(KRX)의 코스피200선물 정규시장과 코스피200선물 야간시장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정 보>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2012년 6월 14일 옵션거래승수를 10만에서 50만으로 인상하였다. 옵션프리미엄은 시장의 안정화 성향이 강할수록 높아지고 투기적 성향이 강할수록 낮아진다.

<표> 야간시장과 정규시장의 옵션평균프리미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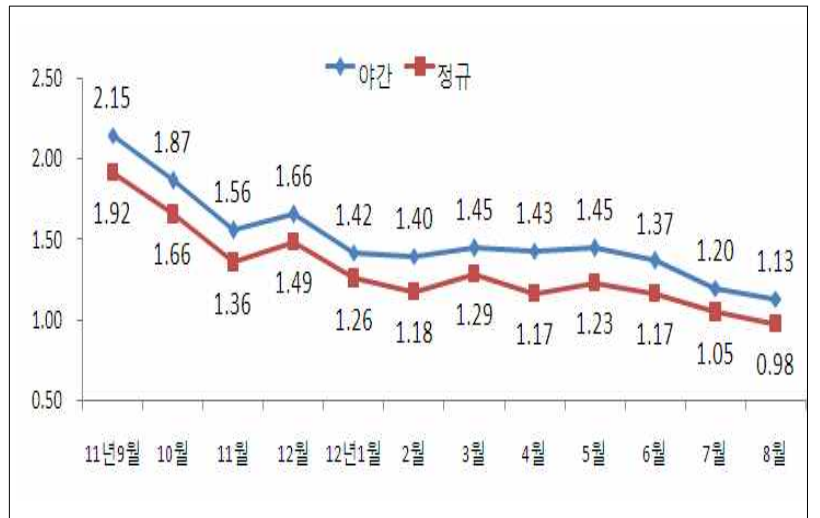
(단위: %p)

주 체	승수인상 이전		승수인상 이후 ³⁾
	총기간 ¹⁾	2012년 ²⁾	
야간시장	1.48	1.32	1.15
정규시장	1.12	1.14	1.00

- 1) '11.09.01. ~ '12.06.13.
2) '12.01.02. ~ '12.06.13.
3) '12.06.14. ~ '12.08.14.

<그림> 월별 옵션평균프리미엄 추세

(단위: %p)



<보 기>

- ㄱ. 야간시장의 옵션평균프리미엄은 승수인상 이전 총기간 동안 평균 1.48%p로 동일기간 정규시장의 옵션평균프리미엄보다 36%이상 높았다.
ㄴ. 2011년 9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야간시장은 정규시장과 비교해서 투기적 성향의 매매행태를 보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ㄷ.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옵션거래승수 인상은 정규시장과 야간시장의 옵션평균프리미엄을 모두 하락시켰다.
ㄹ. 야간시장의 옵션거래승수 인상 이전 총기간의 옵션평균프리미엄과 인상 이후 옵션평균프리미엄을 비교할 경우 동일기간 정규시장에 비해 크게 하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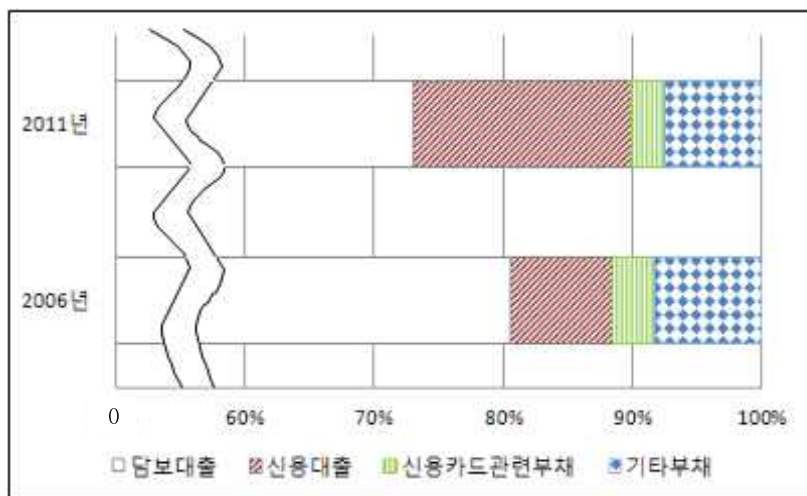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ㄹ
⑤ ㄷ, ㄹ

15. 다음 <표>는 2006년과 2011년 베이비붐세대 가계의 자산·부채 보유 현황을 비교한 자료이다. 이를 기초로 작성한 그림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 2006년과 2011년 베이비붐세대 가계의 자산·부채 보유현황
(단위: 만원, %)

항 목	2006년			2011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총자산	34,961.7	100.0		39,185.3	100.0	
금융자산	7,775.6	22.2	100.0	9,228.0	23.5	100.0
저축액	6,734.4	19.3	86.6	7,378.2	18.8	80.0
적립식	3,471.3	9.9	44.6	3,868.7	9.9	41.9
자유입출금 저축	829.2	2.4	10.7	982.5	2.5	10.6
적립식 저축·펀드	810.7	2.3	10.4	695.8	1.8	7.5
저축성보험	1,831.5	5.2	23.6	2,190.4	5.6	23.7
목돈투자	2,435.0	7.0	31.3	2,710.8	6.9	29.4
예치식 저축·펀드	1,943.6	5.6	25.0	1,685.5	4.3	18.3
주식, 채권, 파생상품	491.4	1.4	6.3	1,025.3	2.6	11.1
기타저축	828.0	2.4	10.6	798.8	2.0	8.7
전·월세 보증금	1,041.2	3.0	13.4	1,849.8	4.7	20.0
실물자산	27,186.1	77.8	100.0	29,957.3	76.5	100.0
부동산	26,052.2	74.5	95.8	28,661.9	73.1	95.7
기타실물자산	1,133.9	3.2	4.2	1,295.4	3.3	4.3
총부채	4,912.0	100.0		7,675.8	100.0	
금융부채	3,791.1	77.2	100.0	5,488.7	71.5	100.0
담보대출	3,056.4	62.2	80.6	4,015.1	52.3	73.2
신용대출	301.8	6.1	8.0	919.8	12.0	16.8
신용카드관련 부채	119.4	2.4	3.1	145.0	1.9	2.6
기타부채	313.5	6.4	8.3	408.8	5.3	7.4
임대보증금	1,120.9	22.8		2,187.1	28.5	
순자산 (총자산 - 총부채)	()			()		

① 2006년과 2011년 금융부채 구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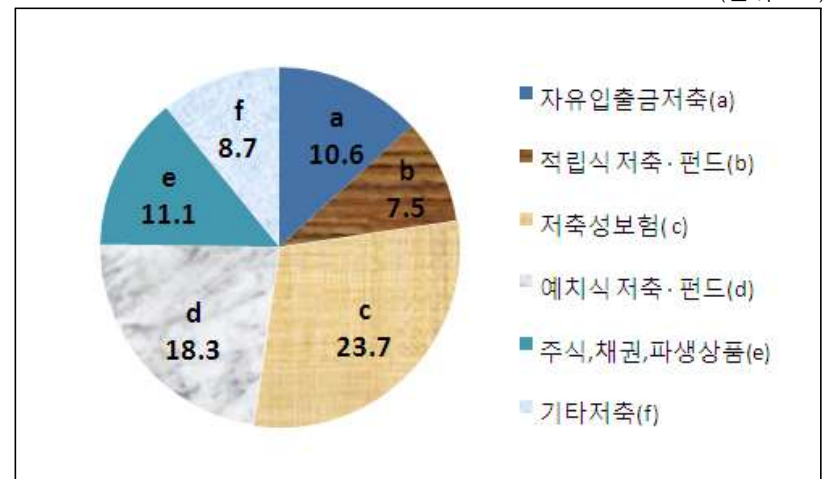


② 2006년 대비 2011년 금융자산 항목별 증감

(단위: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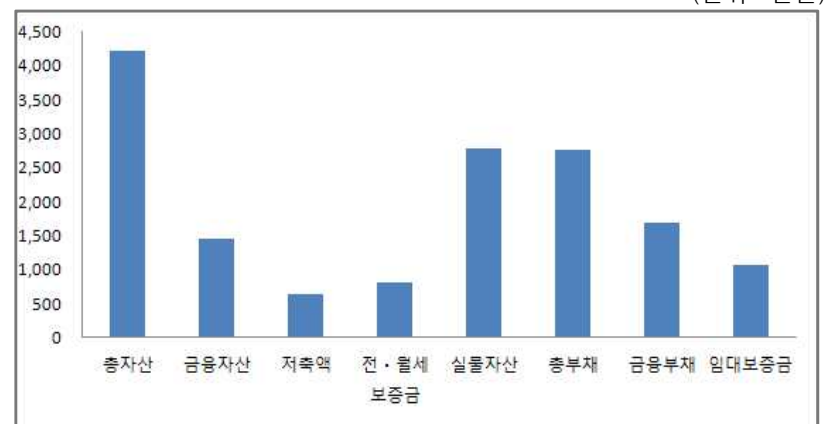
③ 2011년 저축액 구성비

(단위: %)



④ 2006년 대비 2011년 자산·부채의 증가액

(단위: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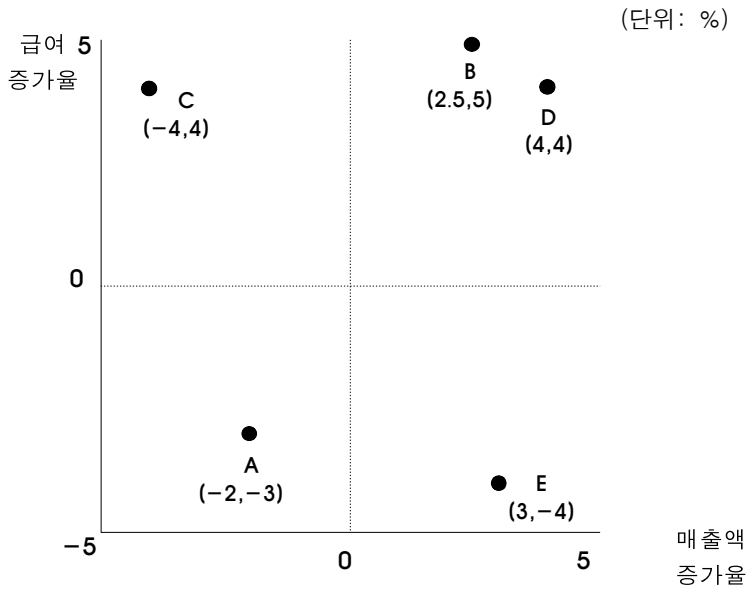


⑤ 2006년과 2011년 총부채와 순자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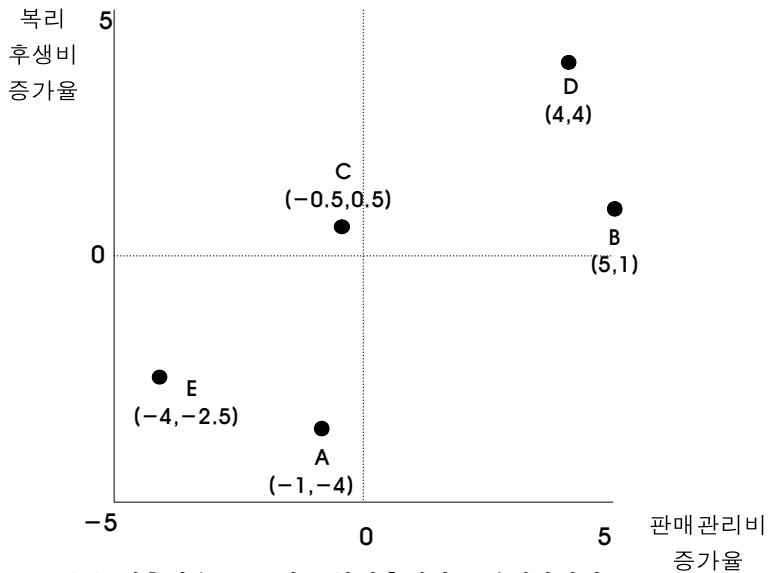
(단위: 만원)

16. 다음 <그림>은 A~E 기업의 2010년 대비 2011년 급여·복리후생비·매출액·판매관리비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그림 1> A~E 기업의 급여 증가율 및 매출액 증가율



<그림 2> A~E 기업의 복리후생비 증가율 및 판매관리비 증가율



- 주1) 매출비용 = 급여 + 복리후생비 + 판매관리비
 주2) 매출이익 = 매출액 - 매출비용
 주3) A~E 기업 모두 2010년 매출이익이 '0'보다 크다.

<보 기>

- ㄱ. D기업은 2010년과 2011년의 매출이익이 동일하다.
 ㄴ. A기업의 매출비용에서 판매관리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에 비해 2011년에 상승하였다.
 ㄷ. E기업의 매출액 중 판매관리비의 비중은 2010년에 비해 2011년에 하락하였다.
 ㄹ. C기업의 매출액 중 판매관리비의 비중은 2010년에 비해 2011년에 상승하였고, 매출비용에서 판매관리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상승하였다.
 ㅁ. A~E 기업 중에서 E기업이 2010년 대비 2011년 매출이익 증가율이 가장 크다.

- ① ㄴ, ㄷ ② ㄱ, ㄴ, ㄷ
 ③ ㄴ, ㄷ, ㄹ ④ ㄴ, ㄷ, ㅁ
 ⑤ ㄱ, ㄴ, ㄷ, ㅁ

17. 다음 <표>는 오디션 프로그램의 단계별·심사수단별 총점반영비율과 참가자 A~F의 심사결과에 관한 자료이다. <정보>를 활용하여 3단계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참가자를 바르게 묶은 것은?

<표 1> 단계별·심사수단별 총점반영비율

심사수단	1단계	2단계
사전 온라인 투표	0%	10%
실시간 문자 투표	30%	30%
실시간 방청객 투표	40%	30%
현장 심사	30%	30%

<표 2> 1단계 심사결과

구 분		A	B	C	D	E	F
실시간 문자 투표(표)		2,000	1,000	3,500	500	1,500	1,500
실시간 방청객 투표(표)		50	150	100	500	150	50
현장 심사 (점)	심사위원 가	90	50	80	80	70	40
	심사위원 나	80	50	70	80	60	50
	심사위원 다	70	50	60	80	60	60
	심사위원 라	100	60	90	70	40	100
	심사위원 마	80	70	80	80	90	80

<표 3> 2단계 심사결과

구 분		A	B	C	D	E	F
사전 온라인 투표(표)		20,000	50,000	40,000	80,000	60,000	50,000
실시간 문자 투표(표)		30,000	50,000	7,500	2,500	10,000	15,000
실시간 방청객 투표(표)		500	150	400	300	800	300
현장 심사 (점)	심사위원 가	50	80	50	90	80	70
	심사위원 나	40	90	60	80	40	60
	심사위원 다	60	100	70	70	60	50
	심사위원 라	80	80	40	80	50	100
	심사위원 마	50	100	60	70	90	80

<정 보>

- 사전 온라인 투표, 실시간 문자투표, 실시간 방청객 투표는 각각 모든 참가자가 받은 표의 합에 대한 특정 참가자가 받은 표의 비율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후 총점반영비율을 곱하여 총점에 반영한다.
- 현장 심사위원 점수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 각 1건을 제외한 3명의 점수를 산술평균한 후 총점반영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 단계별로 총점이 낮은 2명이 탈락하며, 2단계에서 투표점수를 산정할 때 1단계 탈락자의 투표수는 무시한다.
- 심사위원 2명 이상에게 현장심사에서 100점을 받은 참가자는 다른 심사수단의 결과에 관계없이 무조건 다음 단계로 진출한다.

- ① A, B ② A, E ③ B, D ④ C, F ⑤ D, E

18. 다음 <표>는 A국 B시의 혼인·이혼·출생·사망에 관한 자료이다. 이를 기초로 작성한 그림으로 옳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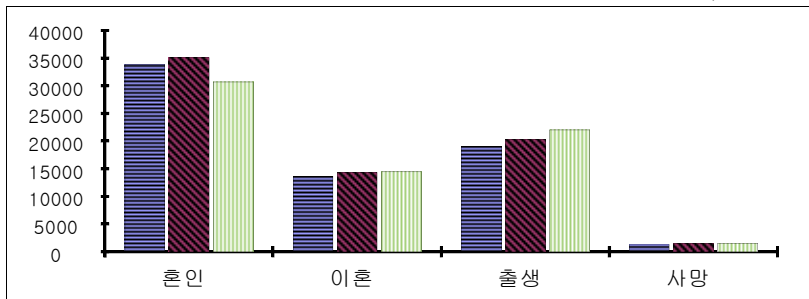
<표> A국 B시의 혼인·이혼·출생·사망 현황

(단위: 명, 건)

구분	A국			B시		
	2009년	2010년	2011년	2009년	2010년	2011년
혼인	309,759	326,104	329,087	33,862	35,098	30,695
이혼	123,999	116,858	114,284	13,653	14,319	14,450
출생	444,849	470,171	471,265	19,024	20,312	22,014
사망	247,033	255,505	257,503	1,338	1,506	1,5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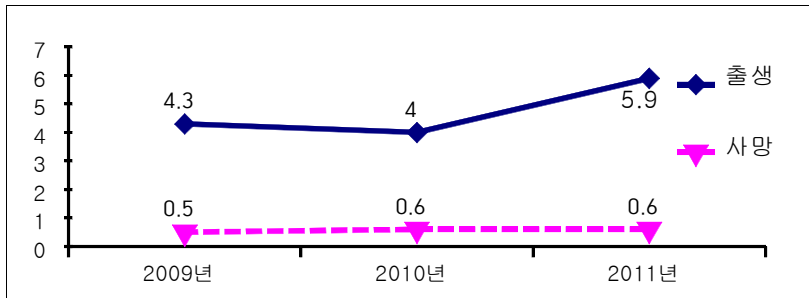
① B시 혼인·이혼·출생·사망 현황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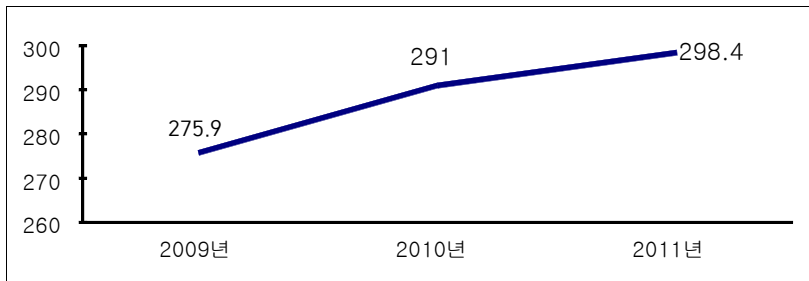
② A국 대비 B시 출생·사망 비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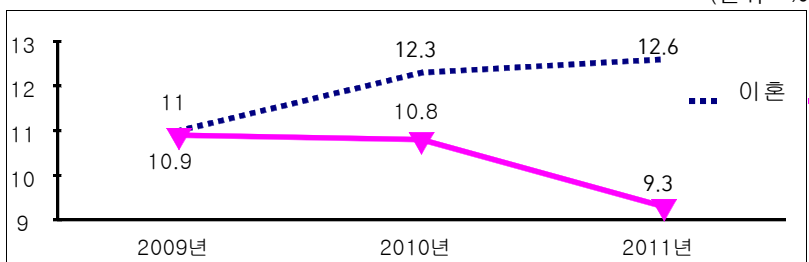
③ B시를 제외한 A국 혼인 건수

(단위: 천건)



④ A국 대비 B시 혼인·이혼 비중

(단위: %)



⑤ B시의 혼인 건수 대비 이혼 건수 비중

(단위: %)



19. <표 1>은 근로자의 고용형태에 따른 훈련 인원이고, <표 2>는 개인 지원방식의 훈련방법별 훈련 인원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 1> 근로자의 고용형태에 따른 훈련 인원

(단위: 명)

구 분		훈련 인원		
		총 계	남 성	여 성
사업주 지원방식	총 계	512,723	335,316	177,407
	A유형	계	480,671	308,748
	정규직	470,124	304,376	165,748
	비정규직	10,547	4,372	6,175
B유형	계	32,052	26,568	5,484
	정규직	32,052	26,568	5,484
개인 지원방식	총 계	56,273	20,776	35,497
	C유형	계	37,768	15,938
	정규직	35,075	15,205	19,870
	비정규직	2,693	733	1,960
D유형	계	18,505	4,838	13,667
	비정규직	18,505	4,838	13,667

<표 2> 개인 지원방식의 훈련방법별 훈련 인원

(단위: 명)

구 분		훈련 인원		
		총 계	남 성	여 성
개인 지원방식	총 계	56,273	20,776	35,497
	C유형	계	37,768	15,938
	집체 훈련	일반과정	29,138	12,487
		외국어과정	8,216	3,234
	원격 훈련	인터넷	414	217
D유형	계	18,505	4,838	13,667
	집체 훈련	일반과정	16,118	4,308
		외국어과정	1,754	334
	원격 훈련	인터넷	633	196

혼인

- ① 근로자 훈련 인원 중 남성의 비율은 사업주 지원방식이 개인 지원 방식보다 높다.
- ② A유형으로 훈련을 받는 근로자 중 정규직 남성의 비율은 B유형으로 훈련을 받는 근로자 중 정규직 남성의 비율보다 낮다.
- ③ 집체훈련 인원의 비중은 C유형이 D유형보다 높다.
- ④ C유형으로 훈련을 받는 근로자 중 원격훈련을 받는 여성의 비중은 D유형의 그것보다 낮다.
- ⑤ C유형으로 훈련을 받는 정규직 근로자 중 80% 이상은 집체훈련 일반과정으로 훈련을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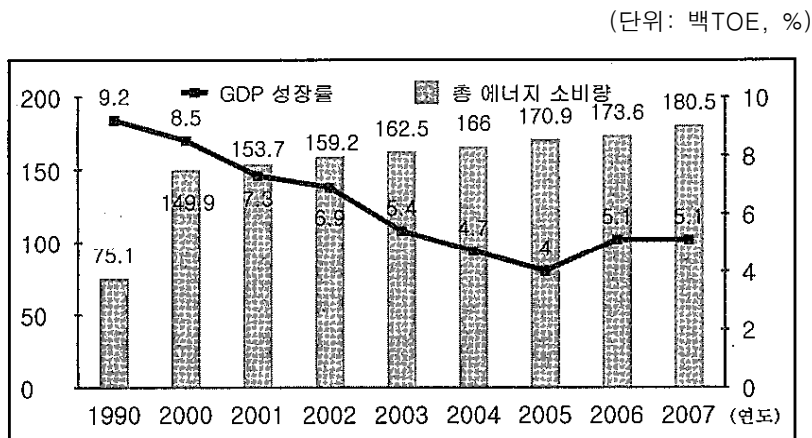
20. 다음 <표>는 K국의 연도별 에너지 수입실적을 나타낸 것이고, 다음 <그림>은 K국의 총 에너지 소비량과 GDP 성장률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서?

〈표〉 K국의 연도별 에너지 수입실적

연도 에너지	199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원유	64.6	252.2	213.7	192.0	230.8	299.2	426.1	558.7	603.2
석유제품	25.5	61.9	57.3	62.1	73.3	83.6	97.2	121.2	150.7
무연탄	0.5	0.7	1.2	1.5	1.8	2.3	4.3	4.1	4.5
유연탄	12.2	20.3	21.6	22.5	22.7	38.9	48.0	49.0	56.8
LNG	4.8	37.9	39.9	41.2	50.8	65.5	86.5	119.2	126.5
우라늄	1.7	2.8	2.3	2.8	2.7	3.4	2.9	3.4	4.9

주) K국은 원유, 석유제품, 무연탄, 유연탄, LNG, 우라늄의 6개 에너지만 수입한다.

〈그림〉 K국의 총 에너지 소비량과 GDP 성장률


$$\text{주1) 에너지 탄성치} = \frac{\text{전년대비 총에너지 소비량 증가율}}{\text{GDP 성장률}}$$

주2) TOE는 석유환산톤수를 의미함.

<보기>

- ㄱ. 유엔탄의 에너지 수입실적은 1990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증가하였다.
- ㄴ.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수입실적이 매년 증가하는 에너지는 2개이다.
- ㄷ.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무연탄 수입실적의 전년대비 증가율은 매년 상승하였다.
- ㄹ. 에너지별 수입실적이 많은 순서대로 나열하면 수입실적 순위는 1990년과 2007년이 같다.
- ㅁ. 에너지 탄성치는 2006년 대비 2007년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 ① $\neg, \perp, \exists$
② $\neg, \sqcup, \exists$
③ $\neg, \sqcup, \square$
④ $\perp, \sqcup, \exists$
⑤ $\perp, \exists, \square$

21. 다음 <표>는 A 통신사의 휴대전화 요금제에 관한 자료이다. <정보>를 참고하여 옳은 것을 고르면?

〈표〉 요금제별 기본 제공량 및 할인액

요금제	기본료	기본 제공량			요금할인
		음성/ 영상	메시지	데이터	
34 요금제	34,000원	160분	200건	750MB	7,700원
42 요금제	42,000원	200분	200건	1.5GB	11,550원
52 요금제	52,000원	250분	250건	2.5GB	14,850원
62 요금제	62,000원	350분	350건	6GB	19,800원
72 요금제	72,000원	500분	450건	10GB	22,000원
85 요금제	85,000원	750분	650건	14GB	24,200원
100 요금제	100,000원	1,200분	1,000건	20GB	26,400원
120 요금제	120,000원	1,500분	1,000건	24GB	28,600원

주1) 청구요금 = 기본료 + 추가사용료 + 부가세[총사용액(기본료 + 추가사용료)의 10%] - 요금 할인액

주2) 1GB = 1,024MB

· < 정 보 >

- 1) 음성/영상/HD영상
 - 기본 제공량 차감기준 : 음성 1초 이용 시 1초 차감
영상 1초 이용 시 1.6초 차감
HD영상 1초 이용 시 2초 차감
 - 추가사용료 : 음성 1.8원/초, 영상 3원/초, HD영상 5원/초
- 2) 메시지
 - 기본 제공량 차감기준 : SMS와 MMS는 구분 없이
개당 1건씩 제공량 내에서 차감
 - 추가사용료 : SMS는 건당 20원이며 MMS는 건당 40원
- 3) 데이터 추가사용료
 - 1.9GB 미만 : 12.8원/MB
 - 1.9GB 이상 6GB 이하 : 25,000원
 - 6GB 초과 : 25,000원 + 12.8원/MB(6GB 초과사용량)

- ① 34 요금제 이용 시 기본 제공량에서 SMS만 20건 초과 사용하였다면 동일 요금제에서 기본 제공량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400원을 더 내야한다.
- ② 62 요금제 이용 시 기본 제공량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청구요금은 42,200원이다.
- ③ 72 요금제 이용 시 음성 470분, SMS 390건, MMS 60건, 데이터 7GB를 사용했다면 추가사용료가 발생할 것이다.
- ④ 100 요금제 이용 시 기본 제공량에서 데이터만 3GB 초과 사용하였다면 120 요금제의 기본 제공량만 사용했을 때의 요금보다 더 많은 요금을 내야한다.
- ⑤ 120 요금제 이용 시 기본 제공량에서 데이터만 2GB 초과 사용하였다면 동일 요금제에서 기본 제공량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25,000원을 더 내야한다.

22. 다음 <표 1>과 <표 2>는 부모세대와 자식세대가 스스로 판단하는 주관적 계층 의식 및 실제 계층 구성비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표 1〉 부모 세대의 계층 의식

(단위: %)

구 분		주관적 계층 의식			
		상	중	하	계
실 제 계 층	상	3.3	4.9	15.4	23.6
	중	3.5	7.6	21.5	32.6
	하	5.1	()	27.9	43.8
	계	11.9	23.3	64.8	100

〈표 2〉 자식 세대의 계층 의식

(단위: %)

구 분		주관적 계층 의식			
		상	중	하	계
실 제 계층	상	4.1	5.3	12.9	22.3
	중	7.5	6.7	20.1	34.3
	하	8.2	9.8	()	43.4
	계	19.8	21.8	58.4	100

<보 기>

7. 실제 계층보다 주관적 계층 의식이 높은 사람의 비율은 부모 세대보다 자식 세대에서 더 높다.

나. 부모 세대에서 주관적 계층 의식이 ‘중’인 사람 중 실제 계층이 ‘하’인 사람의 비율이, 자식 세대에서 실제 계층이 ‘하’인 사람 중 주관적 계층 의식이 ‘하’인 사람의 비율보다 크다.

㉔. 실제 계층과 주관적 계층 의식이 일치하는 사람의 수는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에서 모두 실제 계층이 낮을수록 많다.

ㄱ. 주관적인 계층 의식이 실제 계층과 일치하지 않는 비율은 부모 세대가 자식 세대보다 더 크다.

- ① $\neg$, $\perp$
② $\neg$, $\vdash$
③ $\neg$, $\rightleftharpoons$
④ $\perp$, $\rightleftharpoons$
⑤ $\vdash$, $\rightleftharpoons$

23. 다음 <표>는 '갑' 회사가 신입사원 1명을 채용하기 위하여 실시한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의 결과 자료이다. 아래의 <합격자 결정 기준>을 각각 적용할 때 합격자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표 1〉 필기시험 결과

이름	성별	국어	영어	상식	자격증
영식	남	92	76	72	없음
대호	남	76	92	48	있음
근우	남	80	88	69	없음
지희	여	88	50	72	있음
준혁	남	68	100	57	없음
수진	여	48	80	70	있음

〈표 2〉 실기시험 결과

이름	성별	100m 달리기 (초)	제자리 멀리뛰기 (cm)	팔굽혀 펴기 (회/1분)	윗몸일으 키기 (회/1분)	약력 (kg)
영식	남	14.8	239	22	32	50
대호	남	15.0	242	24	47	46
근우	남	14.2	233	41	39	48
지희	여	17.9	177	32	38	27
준혁	남	14.5	223	31	40	55
수진	여	19.6	166	15	31	37

〈표 3〉 실기시험 체력측정기준

종 목	성별	평가점수									
		20점	18점	16점	14점	12점	10점	8점	6점	4점	2점
100미터 달리기 (초)	남	12.7 이하	12.8 13.0	13.1 13.3	13.4 13.6	13.7 14.0	14.1 14.4	14.5 14.7	14.8 15.1	15.2 15.3	15.4 이상
	여	14.0 이하	14.1 14.7	14.8 15.5	15.6 16.3	16.4 17.0	17.1 17.7	17.8 18.5	18.6 19.2	19.3 20.0	20.1 이상
제자리 멀리 뛰기 (cm)	남	263 이상	262 258	257 255	254 250	249 246	245 243	242 240	239 237	236 232	231 이하
	여	199 이상	198 194	193 189	188 185	184 181	180 177	176 173	172 169	168 165	164 이하
팔굽혀펴 기 (회/1분)	남	58 이상	57 54	53 50	49 46	45 42	41 38	37 33	32 28	27 23	22 이하
	여	50 이상	49 46	45 42	41 38	37 34	33 30	29 26	25 22	21 19	18 이하
윗몸일으 키기 (회/1분)	남	58 이상	57 55	54 51	50 46	45 40	39 36	35 31	30 25	24 22	21 이하
	여	55 이상	54 50	49 45	44 40	39 35	34 30	29 25	24 19	18 13	12 이하
약력 (kg)	남	61 이상	60 59	58 56	55 54	53 51	50 48	47 45	44 42	41 39	38 이하
	여	40 이상	39 38	37 36	35 34	33 31	30 29	28 27	26 25	24	23 이하

- <합격자 결정 기준>

A : 필기시험 3과목의 평균점수와 실기시험 5종목의 총점을 각각 5:5의 가중치로 합산하여 최고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단, 합격자는 반드시 모든 필기시험 과목에서 60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B : 실기시험 5과목의 총점이 높은 3명의 응시자 중 필기시험 3과목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응시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필기시험 평균성적에 10점을 더한다.

	<u>A</u>	<u>B</u>
①	영식	지희
②	영식	수진
③	대호	근우
④	근우	근우
⑤	근우	지희

24. 다음 <표>는 ‘갑’ 도시에 소재한 A~G대학 이공계 외국인 전임 교원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표> ‘갑’ 도시 소재 대학 이공계 외국인 전임교원 분포
(단위: 명)

구분	전임교원 수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이공계 외국인 전임교원 1인당 이공계 학생 수
	전체	외국인	이공계 외국인		
A	2,282	89	36	14.5	505
B	1,524	96	24	13.4	558
C	1,355	103	38	13.2	294
D	250	19	19	23.0	221
E	570	45	43	15.6	146
F	83	5	2	18.2	505
G	117	11	11	12.1	89
합계	6,181	368	173	14.4	319

<보 기>

- ㄱ. B대학 전체 학생 수는 C대학 전체 학생 수에 비해 10% 이상 많다.
- ㄴ. C대학 비이공계 외국인 전임교원은 C대학 전체 전임교원의 5% 이상이다.
- ㄷ. 전체 학생 수가 가장 많은 대학은 A대학이고 가장 적은 대학은 G대학이다.
- ㄹ. 전체 학생 수에서 이공계 학생 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C대학이 D대학보다 크다.
- ㅁ. ‘갑’ 도시의 A~G 대학 전체 대학생 중 이공계 대학생의 비중은 70%를 넘지 않는다.

- ① ㄱ, ㅁ
- ② ㄷ, ㅁ
- ③ ㄱ, ㄴ, ㄹ
- ④ ㄱ, ㄷ, ㅁ
- ⑤ ㄴ, ㄷ, ㄹ

25. 다음 <표 1>과 <표 2>는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유로존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표 1> GDP 대비 재정적자비율과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
(단위: %)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유로존	재정적자비율	2.1	6.4	6.2	4.1
	국가부채비율	70.1	79.9	85.3	87.2
그리스	재정적자비율	9.8	15.6	10.3	9.1
	국가부채비율	113.0	129.4	145.0	165.3
포르투갈	재정적자비율	3.6	10.2	9.8	4.2
	국가부채비율	71.6	83.1	93.3	107.8
아일랜드	재정적자비율	7.3	14.0	31.2	13.1
	국가부채비율	44.2	65.1	102.5	108.2
스페인	재정적자비율	4.5	11.2	9.3	8.5
	국가부채비율	40.2	53.9	61.2	68.5
이탈리아	재정적자비율	2.7	5.4	4.6	3.9
	국가부채비율	105.7	116.0	118.6	120.1
독일	재정적자비율	0.1	3.2	4.3	1.0
	국가부채비율	66.7	74.4	83.0	81.2
프랑스	재정적자비율	3.3	7.5	7.1	5.2
	국가부채비율	68.2	79.2	82.3	85.8

<표 2> 전년 대비 GDP 증가율

(단위: %)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전망
유로존	0.3	-0.3	-0.4	0.2
그리스	-8.6	-7.5	-6.0	-4.0
포르투갈	-0.4	-1.4	-3.0	-4.0
아일랜드	1.0	0.6	0.4	-1.4
스페인	-0.1	0.5	1.5	-1.3
이탈리아	0.2	-0.7	-2.3	-0.7
독일	0.6	-0.1	0.9	0.9
프랑스	0.4	0.0	0.1	0.4

<보 기>

- ㄱ. 2010년에 비해 2013년의 GDP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의 2010년도 GDP는 같은 해 국가부채보다 많다.
- ㄴ. 2010년 그리스의 GDP가 유로존의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라고 할 때, 2011년 그리스의 국가부채가 유로존의 국가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이상이다.
- ㄷ. 아일랜드의 전년 대비 2010년도 재정적자 증가율은 독일보다 높다.
- ㄹ. 프랑스의 전년 대비 2011년도 국가부채 증가율은 5%이하이다.
- ㅁ. 2008년 대비 2011년의 국가부채 증가율이 유로존 평균보다 높은 국가의 수는 셋이다.

- ① ㄱ, ㄴ, ㄷ
- ② ㄱ, ㄷ, ㄹ
- ③ ㄱ, ㄹ, ㅁ
- ④ ㄴ, ㄷ, ㄹ
- ⑤ ㄴ, ㄷ, ㅁ

26. 다음 <표>는 서울특별시와 6대 광역시의 2012년 1월부터 9월까지의 월간인구동향(출생, 사망, 혼인 및 이혼)을 나타내고 있다. <보기>의 사항에 모두 부합하는 도시는 어디인가?

<표> 2012년 월간인구동향

(단위: 명, 건)

행정구역	종류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서울특별시	출생	9,000	7,900	8,400	7,700	7,700	7,500	7,800	8,000	7,900
	사망	3,700	3,800	3,700	3,400	3,300	3,200	3,100	3,500	3,100
	혼인	6,000	5,400	6,100	6,000	6,200	5,600	5,300	5,400	4,300
	이혼	1,600	1,600	1,700	1,500	1,800	1,700	1,800	1,800	1,600
부산광역시	출생	2,600	2,500	2,600	2,400	2,300	2,200	2,400	2,500	2,500
	사망	1,900	1,900	1,800	1,600	1,700	1,600	1,500	1,600	1,600
	혼인	2,000	1,600	1,600	1,800	1,700	1,700	1,600	1,500	1,100
	이혼	600	700	700	600	600	600	600	600	600
대구광역시	출생	1,900	1,800	1,900	1,900	1,800	1,800	1,700	1,900	1,900
	사망	1,100	1,200	1,200	1,000	1,000	900	1,000	900	900
	혼인	1,400	1,100	1,100	1,200	1,200	1,100	1,000	1,100	700
	이혼	400	400	400	400	500	500	400	400	400
인천광역시	출생	2,600	2,200	2,500	2,300	2,300	2,200	2,300	2,400	2,400
	사망	1,100	1,100	1,100	1,100	1,000	1,000	1,000	1,100	1,000
	혼인	1,500	1,400	1,600	1,500	1,500	1,400	1,400	1,400	1,100
	이혼	600	600	600	500	700	600	700	600	600
광주광역시	출생	1,400	1,300	1,300	1,200	1,100	1,100	1,200	1,200	1,300
	사망	600	700	600	500	500	500	500	600	500
	혼인	800	700	800	700	700	700	600	700	500
	이혼	200	300	200	200	300	200	300	300	200
대전광역시	출생	1,400	1,300	1,400	1,300	1,200	1,200	1,200	1,300	1,300
	사망	700	600	600	500	500	500	500	500	500
	혼인	900	800	900	900	800	800	700	700	500
	이혼	200	300	300	200	300	200	300	300	200
울산광역시	출생	1,100	1,000	1,100	1,100	1,000	900	1,000	1,000	1,100
	사망	400	400	400	300	400	400	400	400	400
	혼인	800	600	600	700	700	600	600	600	400
	이혼	200	200	200	200	200	200	300	200	200

<보 기>

- 2012년 1월 ~ 9월 중 6월의 출생자 수가 가장 적은 도시
- 2012년 1월 ~ 9월 중 1월의 혼인 건수가 가장 많은 도시
- 2012년 1월 ~ 9월 중 매월 출생자 수와 사망자 수의 차이가 1,000명 미만인 도시
- 2012년 1월 ~ 9월 중 이혼을 가장 많이 한 달의 이혼 건수가 500건 이하인 도시
- 2012년 1월 ~ 9월 중 혼인 건수와 이혼 건수의 차이가 2월과 8월이 동일한 도시

- ①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②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 ③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④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 ⑤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27. 다음 <표>는 ‘갑’ 기업의 2013년도 분기별 인력수요시간을 예측한 자료이고, ‘갑’ 기업은 다음 <정보>를 이용하여 최적의 추종전략을 선택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표> ‘갑’ 기업의 2013년도 분기별 인력수요시간 예측

(단위: 시간)

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수요예측	15,000	26,000	34,000	18,000

<정 보>

- ‘갑’ 기업의 각 근로자는 분기당 500시간의 정규근로시간을 가지며, 분기당 추가적으로 100시간의 잔업을 할 수 있다.
- 근로자 한 명의 임금은 분기당 550만원이며, 잔업임금은 시간당 2만원이다. 새로운 근로자 한 명을 고용하고 훈련시키는 비용(추가 고용비용)은 700만원이고, 해고비용은 근로자당 200만원이다. 생산부문의 능력유지를 위하여 ‘갑’ 기업은 2012년말 현재 근로자 45명을 고용하고 있다.
- ‘추종전략’은 생산을 위한 총괄계획 수립 시 계획대상기간 동안의 수요변동을 만족시키기 위해 생산율을 조정하는 전략으로 아래와 같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추종전략 A : 2012년 말의 고용수준을 유지하면서 잔업을 이용하는 방법

추종전략 B : 고용수준을 수요에 맞게 변경하는 방법

<보 기>

- 추종전략 A를 선택한다면 2013년도 2분기에 ‘갑’ 기업 근로자들은 총 3,500시간의 잔업을 하여야 한다.
- 추종전략 B를 선택한다면 2013년도 각 분기별 인력수요량은 1분기 30명, 2분기 52명, 3분기 68명, 4분기 36명이다.
- 추종전략 B를 선택한다면 ‘갑’ 기업은 2013년도 1분기와 4분기에 각각 근로자 15명과 32명을 해고할 것이다.
- 총비용과 최대 근로시간을 고려할 때 ‘갑’ 기업은 추종전략 A를 선택할 것이다.

- ① ㄱ, ㄷ
 ② ㄴ, ㄷ
- ③ ㄷ, ㄹ
 ④ ㄱ, ㄴ, ㄷ
- ⑤ ㄱ, ㄴ, ㄷ, ㄹ

28. 다음 <표>는 민간분야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보기>에 근거하여 (A)~(E)에 해당하는 유형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표> 민간분야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현황
(단위: 건)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A)	6,490	10,148	5,216	3,727
(B)	1,163	988	731	365
(C)	3,175	2,743	4,126	2,961
(D)	2,908	3,031	3,019	2,783
(E)	2,204	4,320	3,043	1,854
전체	15,940	21,230	16,135	11,690

<보 기>

- ㄱ. 스팸릴레이와 홈페이지 변조는 매년 발생건수의 증감방향이 동일하다.
- ㄴ. 2010년에 발생건수의 전년대비 변화율이 가장 큰 유형은 단순 침입시도이다.
- ㄷ.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기타 해킹 발생건수는 피싱 경유지 발생건수의 두 배를 넘는다.
- ㄹ. 2008년보다 2011년에 전체 발생건수 중 해당 유형의 발생건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한 유형은 홈페이지 변조, 단순침입시도, 기타 해킹이다.

(A) (B) (C) (D) (E)

- ① 홈페이지 변조 기타 해킹 스팸릴레이 단순침입시도 피싱 경유지
- ② 스팸릴레이 피싱 경유지 단순침입시도 기타 해킹 홈페이지 변조
- ③ 피싱 경유지 스팸릴레이 단순침입시도 기타 해킹 홈페이지 변조
- ④ 단순침입시도 피싱 경유지 홈페이지 변조 기타 해킹 스팸릴레이
- ⑤ 스팸릴레이 홈페이지 변조 기타 해킹 피싱 경유지 단순 침입시도

29. 다음 <표>는 1970년 이후 주요 작물의 재배면적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표> 식량작물·채소류·과실류 주요 품목별 재배면적의 비중
(단위: %)

구 분	식량작물			채소류			과실류		
	미곡	맥류		배추	양파		사과	감귤	
1970년	82.9	44.6	30.9	7.8	27.5	1.6	1.8	35.0	10.0
1975년	80.2	48.3	30.2	7.8	15.6	1.7	2.4	41.9	12.2
1980년	71.7	62.2	18.2	13.0	12.7	2.0	3.6	46.5	12.1
1985년	68.7	69.5	14.4	13.0	11.2	2.4	4.2	34.9	14.7
1990년	69.3	74.5	9.6	11.5	13.9	2.5	5.5	36.8	14.3
1995년	61.3	78.5	6.7	14.7	9.9	3.1	7.8	28.7	13.8
2000년	62.7	81.3	5.2	14.1	11.9	4.1	8.1	16.8	15.6
2005년	64.1	79.4	4.9	12.5	11.4	5.2	7.2	17.4	14.2
2006년	63.3	80.9	4.9	12.6	13.0	5.6	7.9	18.4	13.8
2007년	62.6	81.7	4.8	12.0	11.2	6.4	8.0	18.8	13.6
2008년	62.3	81.7	4.9	12.2	12.4	6.8	8.1	19.5	13.6
2009년	60.1	82.0	4.8	11.5	11.8	7.1	8.1	19.7	13.4
2010년	60.1	82.0	3.6	11.3	10.2	9.0	8.6	19.1	13.0

주1) 식량작물, 채소류, 과실류 항목의 수치는 전체 경지이용면적 대비 각 작물의 재배면적 비중을 의미함.

주2) 미곡, 맥류 등 세부품목의 수치는 식량작물, 채소류, 과실류의 재배면적 대비 각 품목의 재배면적 비중을 의미함.

- ① 2009년과 2010년의 미곡 재배면적은 동일하다.
- ② 2005년 과실류의 재배면적이 1970년에 비하여 100% 증가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전체 경지이용면적은 동일한 기간 동안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③ 1975년 과실류의 재배면적 중 사과의 재배면적이 가장 넓다.
- ④ 2000년 감귤의 재배면적은 배추의 재배면적보다 넓다.
- ⑤ 1970~2010년 동안 양파의 재배면적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30. A국은 국가대표 선수들의 국제대회 입상 성적을 <표 1>의 점수를 기준으로 평가한 후, <표 2>의 기준에 따라 연금을 매월 지급하고 있다. 이를 참고하여 <표3>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 1> 국가대표 선수의 국제대회 입상에 따른 평가점수
(단위: 점)

구 분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4위	5위	6위
올림픽	90	30	20	8	4	2
세계선수권	45	12	7	-	-	-
아시안게임	10	2	1	-	-	-

<표 2> 각 누적점수 구간별 연금 월지급액
(단위: 점, 천원)

누적 평가 점수	20 ~ 29	30 ~ 39	40 ~ 49	50 ~ 59	60 ~ 69	70 ~ 79	80 ~ 89	90 ~ 99	100 ~ 109	110 ~
지급액	300	450	525	600	675	750	825	900	975	1,000

<표 3> A종목 국가대표 선수들의 성적

성적 선수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4위	5위	6위
갑	세계 선수권 2회			올림픽 1회		
을	올림픽 1회	아시안 게임 2회				
병	아시안 게임 2회		올림픽 1회		올림픽 1회	
정		아시안 게임 1회	올림픽 1회	세계 선수권1회		
무	세계 선수권 1회					
기			올림픽 2회	세계 선수권 1회	아시안 게임 1회	올림픽 1회
경		올림픽 1회		세계 선수권 1회		
신	올림픽 1회		아시안 게임 2회		올림픽 1회	
임	세계 선수권 1회					
계					올림픽 1회	올림픽 1회

- ① 10명의 선수 중 월 50만원 이상을 수령하는 선수는 8명이다.
- ② 10명의 선수 중 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선수는 1명이다.
- ③ 10명의 선수 중 월 90만원 이상을 수령하는 선수는 3명이다.
- ④ 선수 10명의 월 평균 수령액은 50만원보다 많다.
- ⑤ 정은 월 30만원을 수령한다.

31. ‘갑’ 정당은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을 진행하고 있다. 각 경선 후보별 지지율이 다음 <표>와 같다고 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표> ‘갑’ 정당 경선 후보별 지지율
(단위: %)

후보자	시민 선거인단					당원	여론조사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A	55	55	35	20	20	35	35
B	15	10	35	50	50	45	40
C	30	30	30	30	30	20	25
D	0	5	0	0	0	0	0

- 주1) 각 연령 집단의 시민 수는 같다.
- 주2) 시민 선거인단 지지율은 각 연령 집단별 지지율을 산술평균하여 도출한다.
- 주3) ‘갑’정당은 시민 선거인단 지지율, 당원지지율 및 여론조사 결과에 가중치를 곱한 후 합산한 점수가 가장 큰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선출한다.

<보 기>

ㄱ. B후보와 C후보의 시민 선거인단의 지지율은 같다.

ㄴ. C후보는 시민 선거인단 지지율, 당원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의 비중이 어떻게 분배되는지에 관계없이 선출될 가능성이 없다.

ㄷ. 당원 지지율 비중이 1/3, 시민 선거인단 지지율 비중이 2/3인 경우 승자가 결정되지 못한다. 그러나 당원 지지율 비중이 1/4, 시민 선거인단 지지율 비중이 1/2, 여론조사 결과 비중이 1/4인 경우에는 B가 ‘갑’ 정당의 대통령 후보가 된다.

ㄹ. ‘시민 선거인단 지지율 : 당원 지지율 : 여론조사 결과’ 비중이 4:5:1이라면 A가 선출된다.

- ① ㄴ ② ㄱ, ㄴ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32. 다음 <표>는 소비자원이 20개 품목의 권장소비자가격과 판매가격 차이를 조사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표> 권장소비자가격 대비 가격할인을 상위 20개 품목
(단위: 개, 원, %)

구 분	조사 제품수			권장소비자가격과의 괴리율		
	합 계	정상가 판매 제품수	할인가 판매 제품수	권장 소비자 가격	정상가 판매시 괴리율	할인가 판매시 괴리율
세탁기	43	21	22	640,000	23.1	25.2
유선전화기	27	11	16	147,000	22.9	34.5
와이셔츠	32	25	7	78,500	21.7	31.0
기성신사복	29	9	20	337,500	21.3	32.3
VTR	44	31	13	245,400	20.5	24.3
진공청소기	44	20	24	147,200	18.7	21.3
가스레인지	33	15	18	368,000	18.0	20.0
냉장고	41	23	18	1,080,000	17.8	22.0
무선전화기	52	20	32	181,500	17.7	31.6
청바지	33	25	8	118,400	14.8	52.0
빙과	19	13	6	2,200	14.6	15.0
에어컨	44	25	19	582,000	14.5	19.8
오디오세트	47	22	25	493,000	13.9	17.7
라면	70	50	20	1,080	12.5	17.2
골프채	27	22	5	786,000	11.1	36.9
양말	30	29	1	7,500	9.6	30.0
완구	45	25	20	59,500	9.3	18.6
정수기	17	4	13	380,000	4.3	28.6
운동복	33	25	8	212,500	4.1	44.1
기성숙녀복	32	19	13	199,500	3.0	26.2

주1) 권장소비자가격과의 괴리율(%) = $\frac{\text{권장소비자가격} - \text{판매가격}}{\text{권장소비자가격}} \times 100$

주2) 정상가: 할인판매를 하지 않는 상품의 판매가격

주3) 할인가: 할인판매를 하는 상품의 판매가격

<보 기>

- ㄱ. 조사 제품수 중 정상가 판매 제품수의 비율이 높은 품목일수록 정상가 판매 시 권장소비자가격과의 괴리율이 낮다.
- ㄴ. 정상가 판매 시 권장소비자가격과의 괴리율과 할인가 판매 시 권장소비자 가격과의 괴리율의 격차가 가장 큰 품목은 운동복이고, 가장 작은 품목은 빙과이다.
- ㄷ. 기성신사복과 기성숙녀복 중 정상가와 할인가의 차이는 기성숙녀복이 더 크다.
- ㄹ. 할인가 판매 시에도 50만 원 이상에 판매되는 품목은 2가지이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ㄱ, ㄹ
- ④ ㄴ, ㄷ
- ⑤ ㄴ, ㄹ

33. 다음 <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전후하여 1,000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표 1>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단위: %)

질의	응답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에서도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같은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33.1	55.7	10.1	1.1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체르노빌 원전사고와 같은 수준이다	42.0	44.1	12.6	1.3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유출된 방사능이 우리나라를 오염시킬 수 있다	27.9	54.9	16.1	1.1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이 원전을 감축한다면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	21.9	37.5	37.5	3.1	

※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조사한 항목임.

<표 2>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전후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인식 변화 동향
(단위: 명)

사고후 사고전	적극 찬성 (9점)	8점	7점	6점	중립 (5점)	4점	3점	2점	적극 반대 (1점)	계
적극 찬성 (9점)	14	8	17	5	13	4	5	3	6	75
8점	0	22	14	10	21	6	13	3	9	98
7점	0	1	27	15	32	14	25	12	6	132
6점	0	0	1	21	23	33	23	12	10	123
중립(5점)	0	1	1	14	117	52	75	41	74	375
4점	0	0	0	1	6	19	14	12	16	68
3점	0	0	1	0	3	4	14	8	19	49
2점	0	0	0	0	1	0	0	12	15	28
적극 반대 (1점)	0	0	0	0	0	1	0	0	51	52
계	14	32	61	66	216	133	169	103	206	1,000

<보 기>

- ㄱ.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전후하여 원자력 발전에 대해 적극 반대(1점)한 응답자가 증가한 수는 적극 찬성(9점)한 응답자가 감소한 수보다 3배 이상 높다.
- ㄴ.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유출된 방사능이 우리나라를 오염시킬 수 있다고 믿는 응답자(매우 그렇다 + 대체로 그렇다)의 수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전에 이루어진 조사에서 원자력 발전에 대해 반대(1점~4점)한 응답자 수의 4배 이상이다.
- ㄷ.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전후하여 원자력 발전에 대해 중립(5점)적인 인식을 보인 응답자의 감소율은 원자력 발전에 대해 찬성하는 인식(6점~9점)을 보인 응답자의 감소율보다 낮다.
- ㄹ. 후쿠시마 원전사고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전후하여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인식에 변화가 없는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의 25% 이상이다.
- ㅁ.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인식이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전에 비해 나빠진 응답자 수는 인식이 좋아진 응답자 수의 20배 이상이다.

- ① ㄱ, ㄴ, ㄷ
- ② ㄱ, ㄴ, ㅁ
- ③ ㄴ, ㄷ, ㄹ
- ④ ㄴ, ㄹ, ㅁ
- ⑤ ㄷ, ㄹ, ㅁ

34. 다음 <표 1>과 <표 2>는 각 지역이 중앙정부로부터 배분받은 지역 산업기술개발사업 예산 중 다른 지역으로 유출된 예산의 비중과 다른 지역으로부터 유입된 예산의 비중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표 1〉 연도별·지역별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예산 중 타지역 유출 예산 비중
(단위: %)

지 역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06년 ~2010년
강 원	2.19	2.26	4.75	4.35	10.08	5.21
경 남	2.25	1.55	1.73	1.90	3.77	1.98
경 북	0	0	3.19	2.25	2.90	2.12
광 주	0	0	0	4.52	2.85	0.77
대 구	0	0	1.99	7.19	10.51	2.26
대 전	3.73	5.99	4.87	1.87	0.71	3.03
부 산	2.10	2.02	3.08	5.53	5.72	3.16
수도권	0	0	23.71	0	0	22.65
울 산	6.39	6.57	12.65	7.13	9.62	8.60
전 남	1.35	0	6.98	5.45	7.55	5.29
전 북	0	0	2.19	2.67	5.84	2.97
제 주	0	1.32	6.43	5.82	6.42	4.64
충 남	2.29	1.54	3.23	4.45	4.32	3.57
충 북	0	0	1.58	4.13	5.86	3.14
전 국	1.45	1.27	2.80	4.27	5.67	(A)

〈표 2〉 연도별·지역별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예산 중 타지역 유입 예산 비중
(단위: %)

지 역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06년 ~2010년
강 원	0	0	0	0	0	0
경 남	0.57	0.81	2.51	2.82	2.08	1.41
경 북	1.72	2.03	6.58	6.13	5.73	5.19
광 주	0.21	0	0	0	0	0.06
대 구	0.29	2.08	1.13	3.24	4.37	1.20
대 전	3.71	2.89	3.25	3.48	6.44	4.00
부 산	0.23	0.10	1.13	3.86	7.25	1.68
수도권	0	0	39.47	0	0	38.73
울 산	0	0	0.32	0	0	0.06
전 남	0	0	0	0.50	0.61	0.33
전 북	5.31	9.67	1.34	0	0	1.53
제 주	0	0	0	0	0	0
충 남	0	0.74	2.18	2.45	5.23	2.64
충 북	3.57	2.08	0.50	0	0.57	0.98
전 국	1.45	1.27	2.80	4.27	5.67	(B)

<보 기>

7. (A)와 (B)는 같다.

나.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전국 기준 유출·입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㉔. 2008년에 순유입예산(유입예산-유출예산)이 가장 큰 지역은 수도권이다.

ㄷ. 수도권은 조사기간 중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예산을 2회 이상 배분받았다.

□. 2010년 순유입예산(유입예산-유출예산)이 0보다 큰 지역은 4개이다.

- ① $\neg$, $\square$
 ② $\neg$, $\bot$, $\square$
 ③ $\neg$, $\sqsubset$, $\square$
 ④ $\bot$, $\sqsubset$, $\sqsubset$
 ⑤ $\sqsubset$, $\sqsubset$, $\square$

※ 다음 <표>는 어린이집의 시설, 이용 영유아 및 교직원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단, 어린이집의 유형은 <표>에 제시된 6가지뿐이다.)

〈표 1〉 어린이집 시설 현황

(단위: 개소)

연도	국·공립 어린이집	법인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부모협동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계
2008	1,826	1,458	14,275	15,525	65	350	33,499
2009	1,917	1,470	14,368	17,359	66	370	35,550
2010	2,034	1,468	14,677	19,367	74	401	38,021
2011	2,116	1,462	15,004	20,722	89	449	39,842

〈표 2〉 연령별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현황

(단위: 명)

구 분		국·공립 어린이집	법인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부모협동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계
2008년	0~2세	36,530	35,502	229,414	193,463	463	6,517	501,889
	3~4세	56,342	50,497	293,086	13,587	705	7,875	422,092
	5세 이상	30,533	27,895	146,965	3,388	323	2,417	211,521
2009년	0~2세	42,331	38,648	262,728	222,332	540	7,815	574,394
	3~4세	59,947	49,969	290,620	12,091	755	8,518	421,900
	5세 이상	27,378	23,721	122,415	2,420	360	2,461	178,755
2010년	0~2세	47,081	42,445	317,489	269,243	639	9,359	686,256
	3~4세	61,609	48,543	292,599	10,603	881	9,571	423,806
	5세 이상	28,914	23,066	112,929	1,590	378	2,971	169,848
2011년	0~2세	49,892	41,685	337,573	298,470	817	10,895	739,332
	3~4세	64,696	49,527	319,903	8,869	1,046	10,992	455,033
	5세 이상	28,447	21,476	99,847	1,071	423	3,100	154,364

〈표 3〉 어린이집 교직원 현황

(단위: 명)

연도	국·공립 어린이집	법인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부모협동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계
2008	17,853	16,572	97,964	55,169	331	3,214	191,103
2009	19,397	17,042	103,656	62,863	348	3,606	206,912
2010	20,980	17,368	112,239	73,895	398	4,204	229,084
2011	22,229	17,491	120,503	82,911	485	5,016	248,635

35. <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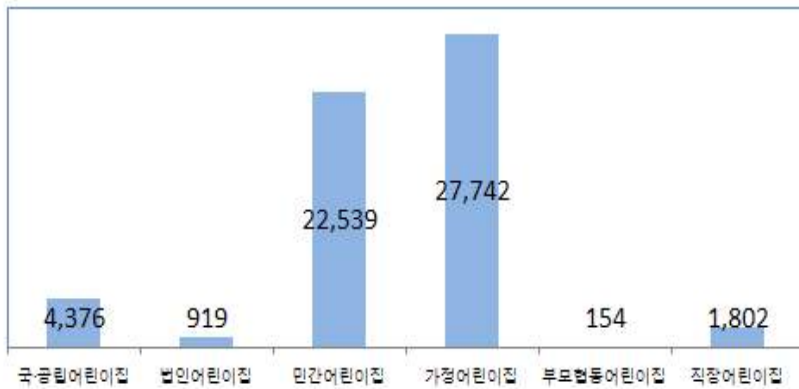
<보 기>

- ㉠. 어린이집 유형별 이용 영유아 수의 순위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동일하게 나타난다.
- ㉡. 2011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전체 영유아 중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비율은 10% 미만이다.
- ㉢. 2011년 시설 1개소 당 교직원 수가 가장 많은 어린이집은 법인 어린이집이다.
- ㉣. 2010년 교직원 수가 많은 상위 3개 유형 어린이집 시설의 교직원수 합은 2010년 어린이집 전체 교직원 수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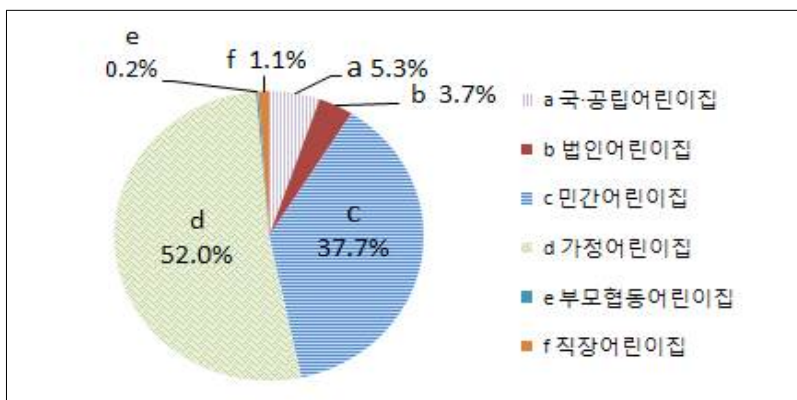
- ① $\neg$, $\perp$
 ② $\neg$, $\sqsubset$
 ③ $\perp$, $\sqsubset$
 ④ $\neg$, $\sqsubset$, $\sqsubset$
 ⑤ $\perp$, $\sqsubset$, $\sqsubset$

36. <표>를 기초로 작성한 그림으로 옳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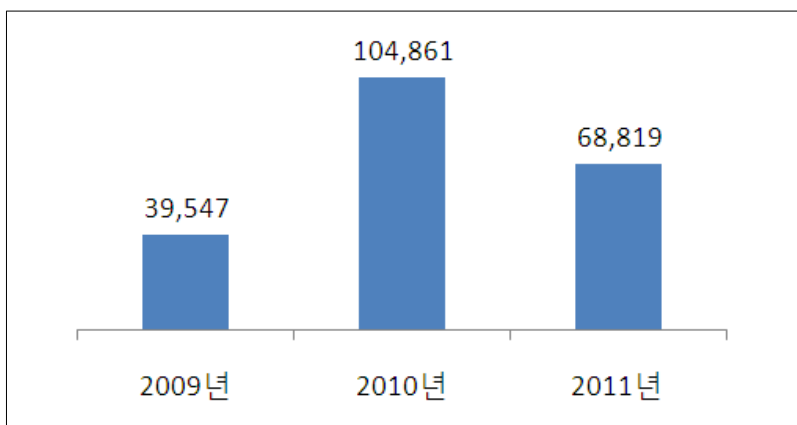
- ① 2008년 대비 2011년 어린이집 전체 교직원 수 증가 현황(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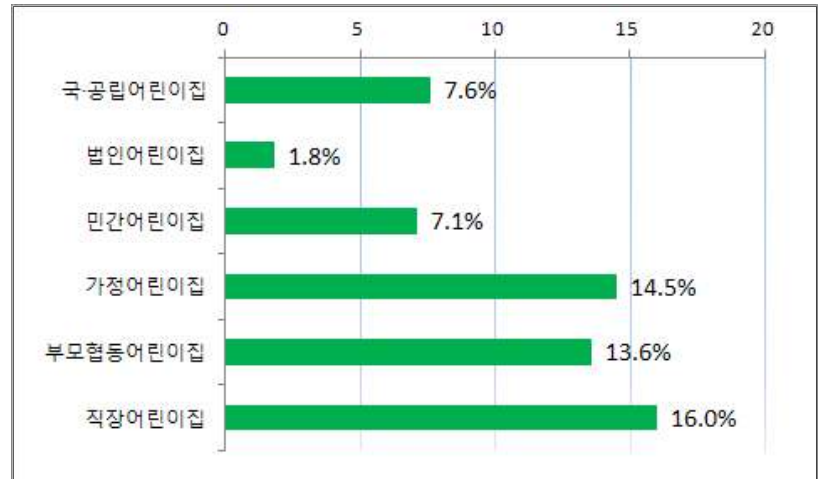
- ② 2011년 어린이집 유형별 시설 구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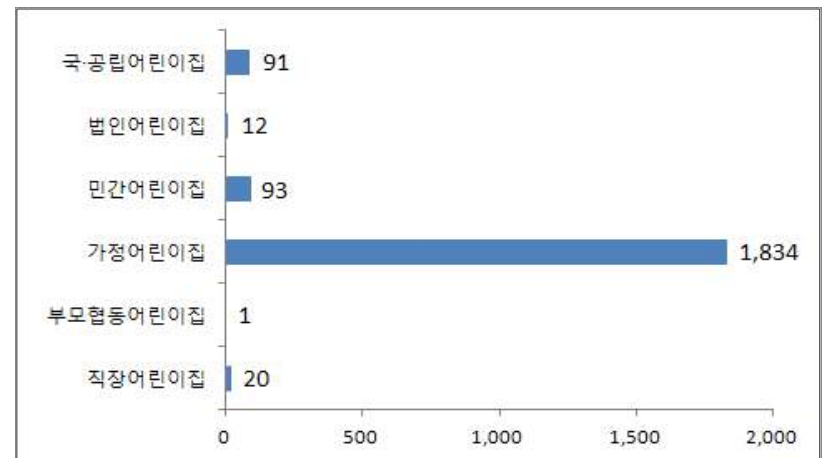
- ③ 전년대비 2009년~2011년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증가 수(명)



- ④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어린이집 교직원 수 연평균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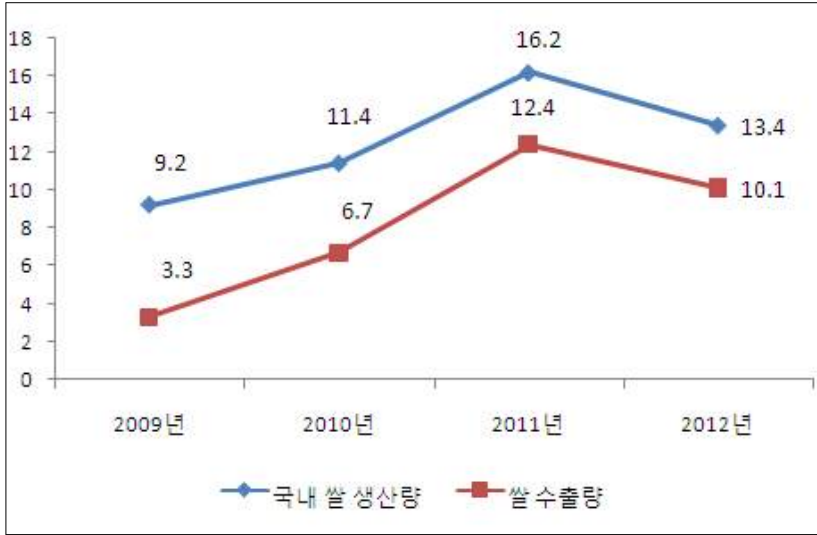
- ⑤ 2009년 신설 어린이집 현황(개소)



37. 다음 <그림>과 <표>는 A국의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쌀 생산과 소비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그림> A국의 쌀 생산량 생산 및 수출 추이

(단위: 만톤)



- ※ A국에서 생산된 쌀은 국내에서 소비되거나 수출되며, 남은 쌀은 다음 연도 국내 소비, 수출을 위해 국내에 비축된다.
- ※ A국은 다른 나라로부터 쌀이 유입되지 않는다.
- ※ 2009년 1월 1일의 A국 쌀 비축량은 '0'이다.

<표> A국 쌀 소비 추이

구분 \ 연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쌀 소비량 (만톤)	5.3	4.2	3.0	2.8
1인당 연간 쌀 소비량 (kg)	30.1	28.0	28.4	22.0

<보 기>

- ㄱ. A국의 전년 대비 쌀 수출량 증가율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중에서 2010년에 가장 크다.
- ㄴ. A국은 2011년도에 생산된 쌀의 75% 이상을 다른 나라로 수출 하였다.
- ㄷ. A국의 전체 인구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10% 이상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 ㄹ. 2011년 A국의 쌀 소비량이 10% 증가하면, 2011년 말 쌀 비축량은 10%보다 더 크게 감소한다.
- ㅁ. 2012년 대비 2013년에 A국의 쌀 생산량, 수출량, 국내 소비량이 모두 10% 증가한다면, 2012년 말 대비 2013년 말 쌀 비축량은 10% 증가한다.

- ① ㄱ, ㄷ
- ② ㄷ, ㄹ
- ③ ㄷ, ㅁ
- ④ ㄱ, ㄷ, ㅁ
- ⑤ ㄴ, ㄷ, ㅁ

38. 다음 <표 1>과 <표 2>는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적발된 품목별 (가방류, 시계류, 신발류, 안경류, 의류, 장신구류, 기타) 위조상품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정보>를 참고하여 A~F에 해당하는 품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표 1> 품목별 위조상품 현황(적발 수량 기준)

(단위: 개)

품목 \ 연도	A	B	C	D	E	F	기타	계
2004	84,781	53,849	1,307	615	241	91	8,671	149,555
2005	7,102	6,969	1,916	1,280	94	80	301	17,742
2006	2,172	8,747	2,066	471	200	61	1,135	14,852
2007	8,587	5,875	1,401	217	176	63	19,047	35,366
2008	2,988	5,251	5,678	236	102	134	83,362	97,751
2009	22,139	30,998	7,359	4,627	381	338	18,738	84,580
합계	127,769	111,689	19,727	7,446	1,194	767	131,254	399,846

<표 2> 품목별 위조상품 현황(적발 횟수 기준)

(단위: 건)

품목 \ 연도	A	B	C	D	E	F	기타	계
2004	602	1,363	303	103	94	32	15	2,512
2005	348	1,960	459	105	60	41	65	3,038
2006	475	1,979	493	150	110	30	132	3,369
2007	458	2,062	554	133	119	44	133	3,503
2008	509	1,913	550	134	71	67	58	3,302
2009	1,711	4,106	1,829	452	109	235	421	8,863
합계	4,103	13,383	4,188	1,077	563	449	824	24,587

<정 보>

- 가방류, 장신구류는 연도별 적발 횟수의 증감 방향이 같다.
- 2004년에 비해 2009년 적발 수량이 증가한 품목은 가방류, 시계류, 신발류, 안경류이다.
-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총 적발 횟수 당 총 적발 수량이 가장 적은 품목은 기타를 제외하면 안경류이다.
- 2008년에 비해 2009년 전체 적발 횟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한 품목은 가방류, 신발류, 안경류, 의류이다.

- | | | | | | | |
|---|----------|----------|----------|----------|----------|----------|
| | <u>A</u> | <u>B</u> | <u>C</u> | <u>D</u> | <u>E</u> | <u>F</u> |
| ① | 의류 | 장신구류 | 가방류 | 신발류 | 시계류 | 안경류 |
| ② | 가방류 | 의류 | 장신구류 | 신발류 | 안경류 | 시계류 |
| ③ | 의류 | 장신구류 | 신발류 | 가방류 | 시계류 | 안경류 |
| ④ | 가방류 | 의류 | 장신구류 | 신발류 | 시계류 | 안경류 |
| ⑤ | 신발류 | 가방류 | 장신구류 | 의류 | 안경류 | 시계류 |

39. 다음 <표>는 S국의 국회의원 선거결과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표〉 선거 결과 당별 의석수와 의석 점유율

구 분	A당	B당	C당	D당	기타	합
의식수(석)	152	127	13	5	3	300
의식점유율	0.51	0.42	0.04	0.02	0.01	1.00
득표율	0.43	0.37	0.10	0.03	0.07	1.00

$$\text{주) 유효선거정당의 수} = \frac{1}{\text{각 정당 득표율제곱의 합}}$$

$$\text{유효의회정당의 수} = \frac{1}{\text{각 정당 의석 점유율 제곱의 합}}$$

<보 기>

- ㄱ. 유효선거정당의 수는 유효의회정당의 수보다 더 많다.
- ㄴ.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하여 의석을 다시 배분한다면 B당에 비해 A당의 의석수 감소분이 더 클 것이다.
- ㄷ. 정당 득표율에 비례하여 의석을 배분한다면 유효의회정당의 수는 감소할 것이다.
- ㄹ. 정당의 의석이 득표율과 비례하여 배분되어도 유효의회정당의 수와 유효선거정당의 수는 같아질 수 없다.

- ① $\neg$, $\perp$
 ② $\perp$, $\neg$
 ③ $\sqsubset$, $\sqsupset$
 ④ $\neg$, $\perp$, $\sqsubset$
 ⑤ $\neg$, $\sqsubset$, $\sqsupset$

40. 다음 <표 1>은 지식재산권의 출원 및 등록 현황에 관한 자료이고, <표 2>는 지식재산권 심판 청구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근거하여 작성된 <보고서>의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표 1〉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현황

(단위: 건)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출 원	계	372,697	364,990	362,074	371,116
	특허	170,632	163,523	170,101	178,924
	실용신안	17,405	17,144	13,661	11,854
	디자인	56,750	57,903	57,187	56,524
	상표	127,910	126,420	121,125	123,814
등 록	계	193,939	145,927	159,977	214,013
	특허	83,523	56,732	68,843	94,720
	실용신안	4,975	3,949	4,301	5,853
	디자인	39,858	32,091	33,697	42,185
	상표	65,583	53,155	53,136	71,255

〈표 2〉 지식재산권 심판 청구 현황

(단위: 건, 개월)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심판 청구 건수	계	20,990	17,124	15,188	15,883
	특허	12,238	10,561	9,270	9,664
	실용신안	906	828	559	473
	디자인	806	677	691	439
	상표	7,040	5,058	4,668	5,307
심판 처리 건수	계	19,473	16,728	15,552	16,554
	특허	10,737	9,882	9,632	9,854
	실용신안	855	748	650	635
	디자인	670	697	677	638
	상표	7,211	5,401	4,593	5,427
심판 처리 기간	특허· 실용신안	5.9	8.0	10.6	10.2
	디자인· 상표	5.6	8.0	9.1	8.2

<보고서>

①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의 전체 출원건수는 2009년과 2010년에는 전년대비 감소하였으나, 2011년에는 37만 1,116건으로 전년대비 2% 이상 증가하였다. ② 권리유형별로 살펴보면, 특허권이 2011년 178,924건으로 2010년 대비 5% 이상 증가하여 출원현황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지식재산권의 등록건수는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출원건수와 비슷한 추세를 나타내며, 출원건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년대비 변화율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2011년 전체 지식재산권 등록건수는 21만 4,013건으로 전년대비 33.8%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③한편,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전체 출원건수 대비 전체 등록건수의 비율이 가장 낮은 연도는 2009년이고, 가장 높은 연도는 2011년으로 나타났다.

심판청구건수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심 증가, 기술 선진국에서의 적극적인 권리분쟁화 등으로 인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2009년에는 금융위기 등으로 인한 출원감소로 인해 다소 감소하였으나, 2011년에는 1만 5,883건으로 2010년 대비 4.6% 증가하였다. ④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 총 심판청구건수를 권리유형별로 비교해보면 특허권이 가장 많고 디자인권이 가장 적으며, 연도별 심판청구건수의 순위는 2010년을 제외하고는 동일하다.

심판처리기간은 심판청구건수의 증가, 심판품질향상 대책 추진 등으로 장기화되는 추세이며, ⑤2011년의 경우 특허·실용신안권은 10.2개월, 상표·디자인권은 8.2개월로 평균 9.2개월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